

1284년 忠烈王, 元成公主 발원 金字大藏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Golden Manuscript *Baegcheonin-dalanigyeong*,
Manufactured from Chunglyeol-King & Wonseong-Princess in 1284

남 권 희 (Nam, Kwon Hee)*
석 혜 영 (Suk, Hae Y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6.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函次 |
| 2. 高麗時代 金銀字大藏의 造成 | 7. 金·銀字大藏의 函次 |
| 3. 현존의 金字大藏과 역사 기록 | 8. 맺음말 |
| 4. 현존의 주요 寫經 | <참고문헌> |
| 5.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특징 | |

< 초 록 >

이 연구는 고려시대 忠烈王代에 조성된 金字大藏 중 최근 확인된 『百千印陀羅尼經(合4經)』에 대한 소개와 서지적 분석을 시도하고 더불어 지금까지 알려진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된 金銀字大藏들의 함차를 비교, 검토하여 그 계통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자료는 고려 忠烈王 10년(1284)에 國王과 宮主인 齊國大長公主의 발원에 의하여 제작된 金泥로 쓴 寫經이다.

둘째, 이 金字寫經은 ‘景’자의 函次가 표시된 大藏經의 일부이며 水晶軸을 가진 卷子本의 형태로 전체는 9장의 연결이며 紺紙 바탕에 金泥의 테두리와 界線을 긋고 한 행에 17자를 기준으로 간혹 16-18자의 출입이 있다.

셋째, 수록된 경전은 4종이 합본되어 있는 형식으로 『百千印陀羅尼經』,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과 『佛說甘露陀羅尼呪』 7행, 『莊嚴王陀羅尼呪經』, 『香王菩薩陀羅尼呪經』이 차례로 포함되어 있다.

넷째, 表紙의 裏面에 忠烈王의 2번째 개명한 諱인 ‘賻’자가 붉은 색 수결로 있고 나란한 위치에 ‘元成殿’ 즉 齊國大長公主의 기록과 ‘封印’이란 파스파문자가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宮主가 누구인지 분명해졌으며 국왕의 手決과 宮主의 印章은 처음 확인되는 것이다.

다섯째, 表紙畫와 神將像은 13세기 후반의 다른 金銀字寫經과 유사하고 특히 神將像을 그린 畫員의 이름인 ‘鄭[益迂(추정)]’란 기록이 그림의 우측 하단에 있다. 특히 신장상의 표현은 다른 사경과 비슷하지만 持物을 잡은 자세가 각각 다르다.

여섯째, 권말의 發願文과 筆寫記는 다른 金字大藏과 문장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표기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또 이 사경을 직접 쓴 인물은 崔楨으로 사료 등에서 그 인물은 확인되지 않으나 蔭職의 하위 직급을 받은 글씨를 잘 쓰는 젊은 사람인 까닭에 사경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景’자의 함차와 4종(甘露水陀羅尼 포함) 경전의 수록 내용은 房山石經과 『新集藏經音義隨函錄』 제9책의 ‘景’함에 포함되어 있어서 契丹藏의 순서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4종 경전이 趙成金藏, 初雕大藏經, 再雕大藏經에서는 ‘羔’함에 포함되고 경전의 배열순서도 본 사경과는 역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세부적인 표기나 異體字 등에서도 특징적인 요소를 지닌 귀중한 자료이다.

要語: 1284, 『百千印陀羅尼經(合部)』, 金銀字寫經(大藏), 忠烈王, 元成(齊國大長)公主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shy7694@hanmail.net)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5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5월 24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9일
서지학연구, 제74집, 261-310,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261]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troduce and analyze *Baegcheonin-dalanigyeong* (百千印陀羅尼經) which were recently confirmed among the golden manuscript in the Koryo Dynasty. The summary is as follows.

(1) This is a book written in golden manuscript and it was manufactured by King Chunglyeol & Jegukdaejang-Princess in the 10th year of King Chongryeol's reign (1284).

(2) This golden manuscript is written down on the blue paper (紺紙) with gold line border, has a scroll-form with a crystal axis on each end of it, and belongs to the part of the Scripture Tripitaka with the sign of “景”. The text were formally written down in 17 letters in a line, however few 16 and 18 letters in one line were discovered.

(3) The contents are consisted of following four scriptures in order; *Baeg-cheon-in-dalanigyeong* (百千印陀羅尼經), *Gu-myeon-yeon-agwi-dalani-sinjugyeong*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Bul-seol-gam-lo-dalaniju* (佛說甘露陀羅尼呪) 7 line and *Jang-eom-wang-dalani-jugyeong* (莊嚴王陀羅尼呪經), *Hyang-wang-bosal-dalani-jugyeong* (香王菩薩陀羅尼呪經).

(4) There are unprecedented red signature and a stamp on the reverse side of the front page. The signature belongs to the King Chungryeol and it is the second name of him. The stamp shows ‘Wonseongjeon (元成殿)’ which is the Princess Jegukdaejang’s original temple, and it could be the answer of the controversial debates about the original palace owner.

(5) On the cover, there are a figure and floral pattern which seems to be made in the 13th century and the craftsman’s name is ‘鄭(Zheng)[益迂(ig-u)]’. The figure’s expression is similar to the other gold and silver manuscript version, but the postures and object hold in a hand are different.

(6) Records of publications are similar to the other golden manuscripts, but showed some differences. In addition, the person who wrote this sutra is Choi jeong (崔楨), but the person is not confirmed in the historical data. Yet, it is presumed that he were in lower classes but had outstanding writing skills to be mobilized for the Scripture work.

(7) The contents of ‘景’ and four kinds of scriptures (including gamlosudalani (甘露水陀羅尼)) are included in the ‘景’ of the 9th book *sinjibjang-gyeong-eum-uisuhamlog* (新集藏經音義隨函錄) and *Bangsang-seoggyeong* (房山石經). It is presumed that the narrative sequence of the scriptures corresponds to the order of The Khitan Tripitaka (契丹藏). In addition, these four types of scriptures are included in the “羔” of *joseong-geumjang* (趙成金藏), *chojo Tripitaka* (初雕大藏經), and *jaejo Tripitaka* (再雕大藏經) but the order of the scripture is recorded in reverse.

In addition, this golden manuscript is a valuable data as it holds a lot of differentiator character and various sobriquet of Buddhist literature that can be utilized frequently in researches about Buddhist literature.

Key words: 1284, *Baegcheonin-dalanigyeong*(百千印陀羅尼經),
Gold and silver manuscript(Tripitaka), Chunglyeol-king(忠烈王),
Wonseong(Jegukdaejang)Princess(元成[齊國大長]公主)

1. 머리말

이 연구는 고려시대 忠烈王代에 조성된 金字大藏 중 최근 확인된 『百千印陀羅尼經(合4經)』에 대한 소개와 서지적 분석을 시도하고 더불어 지금까지 알려진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된 金銀字大藏들의 함차를 비교, 검토하여 그 계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사경은 金·銀泥 寫經은 물론 墨書經에 이르기까지 表紙畫, 書體, 變相圖 등에서 그 예술성이 뛰어나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학계의 연구대상이 되어 활발하게 검토되었다. 특히 미술사적 관점에서 그 장식성에 주안을 두어 蓮花, 寶相華, 金剛杵, 神將像, 變相의 여러 장면 등이 검토되었고 서체의 면에서도 大藏經이나 판본, 필사본에 나타난 서체들과 비교하고 중국 등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가 많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은 日本의 京都 龍谷大學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그 전래의 과정은 알 수 없으나 현존본은 1284년에 조성된 高麗 國王宮主 발원, 즉 忠烈王과 齊國大長公主가 발원한 金字大藏의 일부인 『百千印陀羅尼經(合4經)』 1점이다.*

이 寫經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지로부터 권말의 축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다.

둘째, 表紙畫의 형식과 題目, 函次(景)가 있다.

셋째, 표지의 裏面에 忠烈王의 手決, 元成殿(齊國大長公主)의 파스파문자 印章이 있다.

넷째, 卷首의 神將像은 일부 金銀字寫經과 같은 양식이며 하단에 畫師의 이름이 있다.

다섯째, 본문은 4개의 다라니로 구성되었고 판식은 1行 17字의 형식이다.

여섯째, 권말에는 寫成의 연도, 발원자, 서사자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곱째, 축에는 양 끝에 水晶珠로 장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경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완벽하고 다만 본문 중 蟲害를 입어 작은 구멍들이 보이지만 본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시기 즉 忠烈王 때의 金字寫經은 『佛說雜藏經(1284)』의 권말 낱장, 중국에 소장되었으나 전문이 알려지지 않은 『妙法聖念處經(1285)』 등이고 이후 忠肅王 때의 『攝大乘論釋論(1319)』, 『佛說佛名經(1319)』과 발문이 없는 『蘇悉地羯羅供養法(1314-1339)』 등이다. 또 銀字大藏에서 조성된 國王 발원의 사경들과 국가, 사찰, 개인이 발원하고 조성한 후기의 사경들이 다수 알려져 있다.

이러한 金·銀字 寫經 중 『百千印陀羅尼經(合4經)』은 사경의 형식과 발원과 조성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忠烈王과 元成公主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龍谷大學圖書館 事務部[디지털 아카이브 담당]의 협조로 연구가 진행됨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미술사 분야에서 權熹耕¹⁾, 張忠植²⁾, 黃壽永³⁾, 千惠鳳⁴⁾, 이완우⁵⁾ 등이 한국과 일본에 산재된 사경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 영역별로 볼 때도 變相圖와 書體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부터 사경의 양식⁶⁾과 발원문 등 기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 확인된 『百千印陀羅尼經(合4經)』을 서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국왕발원과 金銀字 大藏의 사경을 연구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 高麗時代 金銀字大藏의 造成

寫經은 재료와 제본 형태, 발원자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재료에 의해서는 먹으로 쓴 것과 金 또는 銀泥로 쓴 것으로 크게 나누는데 먹으로 쓴 것은 墨書經, 金·銀으로 쓴 것은 金字經, 銀字經이라 부른다. 불교 전래 초기에는 대부분 묵서경이었을 것이나 차츰 인쇄술이 발달되자 경전의 유통은 목판 인쇄가 담당하게 되고 필사에 따른 공덕 신앙이 강조되면서 금·은의 필사가 성행하였던 것이다.

고려시대 寫經은 귀족불교라는 고려시대 신앙 성격이 말해주듯 국왕과 귀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각지의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사경하였으나 武臣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설치한 寫經院에서 사경 작업을 행하였다. 고려 초기 불교는 瑜伽宗과 華嚴宗이 그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 종파는 地藏·彌勒信仰과 더불어 神異의이고 呪術的인 신라 불교의 밀교적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義天 大覺國師에 의해 天台宗이 성립되자 고려 불교는 비로소 주술적이고 신이적이던 요소가 제거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文宗, 肅宗, 毅宗까지는 금자, 은자의 사경들이 사찰에서 사성되었으며, 국왕발원의 금·은자사경이 국가기관이나 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高麗 光宗 3年(952)에 『大般若波羅蜜多經』 1부를 조성하였고 이때 권수에 “菩薩戒弟子高麗國王王昭 以我國光德四德 歲在壬子秋 敬寫此經一部”라는 언급이 『遼東行部志』에 수록되어 있다.

또 12세기에 제작된 사경들에 대해서는 현존하여 전해지는 것보다 기록만 남아있는 작품들이

-
- 1) 權熹耕, 『고려의 사경』 (대구: 도서출판 글고운, 2006).
 - 2) 張忠植, 『한국사경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3) 黃壽永, “高麗寫經의 研究,” 『考古美術』 180號(1988).
 - 4) 千惠鳳,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 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5) 이완우, “우리나라의 사경 서풍,” 『사경 변상도의 세계 ; 부처 그리고 마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316-331.
 - 6) 김경호, 『韓國의 寫經』 (서울: 한국사경연구회, 2006).

대부분이다. 그 예를 살펴보면, 우선 肅宗 6年(1101) 4월에 임금이 日月寺에 행차하여 금으로 사성한 『妙法蓮華經』을 경축하였고⁷⁾, 이듬해인 同王 7年(1102) 5월에는 玄化寺에 행차하여 紺紙銀字 『瑜伽師地論』, 『顯湯聖教論』의 사성을 경축하였다⁸⁾는 기록이 있어 초조대장경과 같은 木板 大藏經의 조성과 함께 寫經의 조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경은 국왕이나 왕실, 개인이 발원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왕실과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경을 조성하였던 대표기관으로서는 寫經院이며 그 기록은 明宗 11年(1181)의 화재 사건에서 처음 나타나며 후대인 忠烈王 때에 이르러서는 金字院·銀字院이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이들 기관에서는 초기에 승려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筆寫者를 고용하여 금자, 은자사경들을 사성토록 감독 지도하였고 忠烈王 이후 금자원, 은자원이 생기고 난 후에는 寫經僧의 지위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

忠烈王朝에 들어서부터는 국왕발원의 금은자 대장경의 사성이 同王 元年(1275)에 시작되어 지속되었다. 同王 7年(1281) 3월에는 승지 廉承益이 사사로이 부역을 시켜 집을 짓다가 齊國大長公主의 질책을 두려워하여 집의 일부를 金字大藏寫經所로 쓸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다.⁹⁾

同王 8年(1282)에는 충렬왕의 元妃, 貞和宮主 왕씨가 승려 印奇에게 부탁하여 원나라에 들어가 대장경을 인쇄해 와 傳燈寺에 보관했다.¹⁰⁾

또 同王 9年(1283) 9월에는 왕이 金字大藏院에 공양하면서 사경 불사를 독려하였으며, 同王 15年(1289) 윤 10월에도 금자원에 행차하여 대장경의 사성을 경찬하였다.

同王 24年(1298) 정월부터 7월까지의 忠烈王이 元 황제의 명으로 逸壽王이 되고 아들 忠宣王이 元에서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이 때 임금은 金銀字 大藏所에 행차하여 五大部經 즉 華嚴·大集·般若·法華·涅槃의 五部 大乘經에 대하여 언급한 적도 있어 이는 당시 金銀字 寫經 佛事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렇듯 충렬왕 초기부터 국왕발원 금은자대장경의 사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일반 금은자 사경으로서 제작 연대가 확실한 것은 약 70여 건에 불과하지만, 散帙로 전해지는 것을 합친다면 그 숫자는 수백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¹¹⁾

이와 같이 忠烈王朝부터 忠肅王朝에 이르는 사이에 금은자대장경의 사성이 활발하였고 이후 약 반세기간은 각 계층의 문무신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寫經 佛事に 적극성을 띠었기에 高麗 사경의 기술은 최고에 이르렀다. 恭愍王朝부터 고려 말기까지는 寫經의 사성이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寫經 공덕만은 여전히 활기를 띠며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관리와

7) 『高麗史』卷11, 『世家』卷第11, 肅宗 6年 夏4月 戊甲條.

8) 『高麗史』卷11, 『世家』卷第11, 肅宗 7年 5月 丙寅條.

9) 『高麗史』卷123, 『列傳』卷第36, 嬖幸, 廉承益

10) 『新增東國輿地勝覽』第12卷, 京畿 江華都護府 佛宇條

『靑莊館全書』第59卷 盍葉記 6, 鼎足山城

『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編 3 釋典類 1 釋典總說 八萬大藏經

11) 張忠植, “直指寺 金字大藏經의 考察,” 『韓國佛教의 座標: 綠園스님 古稀紀念學術論叢』(1997), 394-415.

무관 그리고 민간인들이 나름으로 발원시재하여 사성한 사경의 종류가 다양하였다.¹²⁾ 그러나 이들 高麗 寫經도 그 동안의 내란과 외침으로 소실되었으며 또한 해외로 약탈되어 현재 국내에 전해지는 것은 사찰 소장이나 아니면 불복과 불탑에서 나온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현존의 金字大藏과 역사 기록

3.1 寫經의 특징

고려에 들어 왕실을 중심으로 金字經, 銀字經이 유행하면서 금과 은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바탕 재료를 白紙보다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 紺紙, 椽紙, 紫紙 등이다. 그 특징적인 요소로 發願者에 따라서는 우선 國王發願의 필사기가 있고 紺紙金·銀字 寫經으로 표지에는 唐草寶相華文이 있다. 卷首에는 화염에 싸인 神將像이나 說法圖가 그려져 있으며, 보통 1行 17字, 14자로 쓰여 있는 金, 銀字藏經이나 密敎 경전을 베껴 쓴 寫經을 들 수 있다. 조성의 목적으로 볼 때는 個人發願 寫經으로서 자신들의 福樂과 安寧을 빌기 위해 제작된 紺紙金·銀字 寫經으로 현존하는 高麗寫經의 많은 수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寫經은 軸에 감겨진 卷子本이나 折帖의 형식이며 절첩의 경우 6행씩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1行 17字이다.

특히 현존하는 자료로 볼 때 국왕발원사경은 주로 元 간섭기때 국왕의 발원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밖에 국가가 주도하여 寫經院이나 寫經所 등에서 조성되었다. 특히 국왕발원 사경의 서사작업은 전문 寫經僧이나 敎藏에서와 같이 여러 기관의 문무반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선발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문 글씨나 표지 장식과 제본 등에 있어서 개인들이 발원한 사경에 비해 그 정교함이 뛰어나다.

3.2 11-12세기의 寫經

현존의 실물 자료와 기록을 비교할 때 金字로 쓰인 경전의 실물이 기록보다 빨라서 11세기의 1006년에 왕실에서 발원한 『大寶積經』을 비롯하여 1081년 金山寺의 成元에 의하여 발원된 8권본 『妙法蓮華經』¹³⁾이 후대의 표지화나 변상도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실물로 紺紙에 金銀字로 조성된 文宗 9년(1055) 개인 발원의 『大般若波羅密多經』 卷第175도 전해지고 있다.¹⁴⁾ 『大般若波羅密多經』은 부처의 지혜(般若)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큰 經이라는

12) 張忠植, “高麗國王, 宮主 發願 金字大藏經考,” 『불교와 역사』 (서울: 한국불교원, 1991), 707-724.

13) 京都國立博物館 編, 『古寫經: 聖なる文字の世界』 (京都: 同博物館, 2004), 50-51.

3, 8卷末 記錄; “太康七年辛酉六月日高麗國金山寺重職 成元 / 廣利人天願成此典也”

뜻으로 기원전후 여러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10여 종의 般若經을 하나의 총서로 묶은 가장 큰 경전으로 그 권말에는 金吾衛大將軍으로 있던 金融範이 국왕과 국가의 태평을 빌고 먼저 돌아가신 조부와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발원경의 발문에서는 당시의 신앙형태와 사경에 동참하는 사람의 관직, 품계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당시 사회상과 인물들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후 12세기에 제작되어 현전하는 개인 발원의 사경 작품으로는 仁宗 13년(1135) 乙卯 5월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佛說彌勒成佛經』이며 형태는 卷子本이다. 이 사경은 靑州官內의 懷仁縣戶長 陪戎校尉 李英位가 紺紙에 金으로 사성한 것으로 현재 일본의 福岡市 東長寺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경의 권말기록에 의하면 靑州官內 懷仁縣의 戶長인 李英位가 三邊에 無窮토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오곡이 풍성하고 인민이 항상 기뻐하기를 기원하여 金字로 彌勒經 3권을 만들어 공양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려 전기 민중신앙으로서 미륵신앙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권말의 간기에 사성시기를 ‘時 乙卯五月日’만의 간지로만 표시하고 있어 그것이 정확히 어느 해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靑州官은 靑州牧의 옛 칭호이며 懷仁縣은 顯宗 9年(1018)에 靑州牧으로 배속되었고, 明宗 2年(1172)에는 公州牧 소속의 懷德監務가 兼任하였으니, 顯宗 9年과 明宗 2年 사이의 乙卯年은 文宗 29年(1075)이 아니면 仁宗 13年(1135)에 해당한다. 그 寫成記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陪戎校尉의 무관 직분으로 세 변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발원하고 있고, 睿宗초에 접어들어 여진족이 자주 침입하여 이를 막기 위해 東·西·北의 세 변경에서 성을 쌓고 방비를 단단히 했던 사실과 여진족의 침공을 尹瓘 등이 이를 물리친 기록 등 이런 당시의 사정을 참작하면 乙卯年은 바로 仁宗 13年(11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⁵⁾

또 毅宗 10年(1156) 4월에도 임금인 後嗣가 없어 왕비와 함께 서약하기를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마땅히 金, 銀字로 『大方廣佛華嚴經』을 4부 이룩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원자가 탄생하게 되자 2부를 사성하여 興王寺에 弘敎院을 짓고 弘眞院으로 院額한 다음 범회를 크게 베풀어 경축하였다.¹⁶⁾ 이때의 경전은 대장경이 아닌 단독의 경전이였다.

본격적인 大藏經이란 명칭이 언급된 것은 明宗 11年(1181) 정월에 왕실에서 銀字藏經의 사성을 명하였을 때 공사간을 막론하고 서로 돈과 재물을 바치어 조성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그 재물을 흠치기 위하여 도적떼들이 寫經院에 불을 질렀다¹⁷⁾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의 寫經은

14)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해제자료 및 원문이미지 판독, 원문텍스트를 인용하면 해제상으로는 金泥로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발원문에서는 ‘金銀字’로 확인되어, 실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자·은자의 확인은 명확치 않다.

15) 千惠鳳, 『고려시대연구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25-326.

이 사경에 대하여 권말의 양식이나 서체로 미루어 顯宗 6年(1015)에 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6) 『高麗史』 卷18, 『世家』 卷第18, 毅宗 夏4月 甲午條.

17) 『高麗史』 卷20, 『世家』 卷第20, 明宗 11年 春正月 戊甲條 ; 『高麗史』 卷53, 『志』 卷第7, 正月 辛亥.

대장경이란 체제로 진행되었고 그 규모가 컸던 관계로 국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기록으로 중앙이 아닌 지방의 사찰 등에서도 金字로 대장경을 조성하였으나 明宗年間(1171~1197)에 불심 깊은 고려의 신료들이 재차 금자대장경을 제작한 후, 直指寺에 海藏堂을 건립하여 이들 사경을 봉안하였고 동시에 金字大藏堂碑를 건립하여 그간의 사정을 기록하였다. 즉 그 기록에 의하면 금자대장경을 보관한 海藏堂 내부의 2층 龕室에는 無量壽佛을 봉안하고, 불경의 상자는 전체 593函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螺鈿이나 朱漆, 혹은 순금으로 각기 달리 粧飾하였다. 그러나 사적기의 기록 중에서는 그 낙성시기를 光宗 元年(950)으로 기록하였으나, 『金字大藏堂記』에 나타나는 林民庇, 任濡(1149~1212) 등의 등장인물 등을 감안할 때 大藏堂의 낙성은 明宗 20년(1190)의 사실로 추정되고 있다.¹⁸⁾

3.3 13세기의 寫經

이 시기의 사경은 크게 高宗朝(1213~1259)와 忠烈王朝(1275~1308)의 것들로 나눌 수 있다. 高宗年間에 제작된 사경은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것은 없고, 대부분 일본으로 유출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 예로는 高宗 37年(1250) 庚戌에 비구 慈叔이 비구 信全·日精과 함께 발원하여 먼저 紺紙에 金으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과 『妙法蓮華經』을 사성하였고, 高宗 44年(1257) 丁巳에 華嚴經 梵行品을 뒷면 끝에 필사하여 『大方廣佛華嚴經梵行品』과 합철한 合寫經 1첩이 전해진다.

이러한 寫經들의 제작을 바탕으로 충렬왕대에 이르러서는 왕이 藏經道場를 자주 열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금은자의 大藏經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존 실물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즉 忠烈王은 원년(1275) 3월¹⁹⁾, 2년(1276) 3월²⁰⁾과 9월²¹⁾, 6년(1280) 3월²²⁾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직접 藏經道場을 열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1275년부터 금자대장이 시작되어 忠烈王 9년(1283) 9월에는 왕과 공주가 金字大藏院에서 飯僧을 베풀었고²³⁾ 동왕 15년(1289) 10월에 이르러서는 金字大藏經이 완성되어 왕이 공주와 함께 金字院에 행차하여 이를 관람하고 친히 경찬회를 베풀었다.²⁴⁾

그 밖에 연대 미상의 銀字寫經으로 卷子本 형식이며, 세로 31.0cm의 『妙法蓮華經』 7卷本²⁵⁾은

18) 張忠植, “直指寺 金字大藏經의 考察,” 『韓國佛敎의 座標』 (서울: 綠園스님 古稀紀念學術論叢, 1997), 394-415.

19) 『高麗史』 卷28, 『世家』 卷第28, 忠烈王 元年 3月 乙未條.

20) 『高麗史』 卷28, 『世家』 卷第28, 忠烈王 2年 3月 庚寅條.

21) 『高麗史』 卷28, 『世家』 卷第28, 忠烈王 2年 3月 甲午條.

22) 『高麗史』 卷29, 『世家』 卷第29, 忠烈王 6年 3月 丙辰條.

23) 『高麗史』 卷29, 『世家』 卷第29, 忠烈王 9年 9月 己未條.

24) 『高麗史』 卷30, 『世家』 卷第30, 忠烈王 15年 閏10月 乙酉條.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5年 10月.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충렬왕대에 사경의 구성에 여러 면으로 관련되었던 廉丞益이 발원한 것으로 그 체제가 1行 14字의 대장경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사경은 사성연대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당시 正議大夫로 密直司의 右承旨였고 興威衛의 上將軍과 大府寺와 軍簿寺의 판서였던 廉丞益이 국왕과 공주의 안녕을 빌고 나라가 평안하며 일문 권속과 처자식이 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경기도 開城 靑郊面 德岩里 南溪院 石塔에서 출토된 이 사경은 충렬왕 때에 왕실과 가장 밀착되어 있던 嬖臣 廉丞益이 발원한 사경이라는 점에서 증시되는 작품이다.

한편 金字와 銀字가 같이 쓰인 그 제작연대가 ‘己酉’라는 것 밖에 알려진 것이 없는 『法華書塔』의 사경도 전하고 있는바 이 사경에 나타나는 飛天像에 대한 연구와 권말기록에 나타나는 新安公이라는 인물의 고찰을 통해 13세기(1249)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恭愍王이 원의 연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己酉라는 간지만 쓰고 있다는 점에서 恭愍王 18年(1369)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⁶⁾

국왕발원의 사경들은 초기에는 사찰에서 부분적으로 사성되었으나, 忠烈王朝에 들어서면서 金字院과 銀字院을 설립하여 보다 대량으로 사성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조판에서 기리던 호국과 왕실의 안녕을 위한 공덕의 의미를 사경에서 찾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忠烈王代에는 元과의 교류도 잦아서 元 皇帝가 金字經을 筆寫함에 글씨를 잘 쓰는 僧侶를 불러서 이에 僧 三十五人을 元에 보냈으며²⁷⁾ 同王 23年(1297)에는 元에서 사신을 보내어 寫經僧을 徵召한 바 있고²⁸⁾ 또한 同王 28年(1302) 夏 四月 辛未에 別帖木兒 등을 보내와 사경승을 징발²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본인 1284년 金字大藏을 그 체제와 양식 등 사경의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충렬왕 다음의 시기에도 활발하게 사경 조성이 이루어졌던 忠宣王과 忠肅王 때의 사례와 주변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3.4 14세기의 寫經

忠宣王代에는 元과의 관계에서 사경과 승려들의 교류가 계속되어 元에서 方臣祐를 보내와 金字로 續藏을 쓰는 것을 감독하는데 皇太后가 金箔 六十錠을 보내 왔으며³⁰⁾ 皇太后가 鎖魯花를 보내와 鈔(楮幣)를 5,800錠을 내려주어 사경 작업을 포상하였고³¹⁾ 이듬 해(1312) 8월의 甲戌日에는 임금이 명하여 旻天寺에서 金字藏經을 쓰게 하여 母后를 追福한 기록³²⁾이 있다.

26)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1986), 381-383.

27)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0, 忠烈王 16年 3月 庚申條.

28)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1, 忠烈王 23年 7月 癸巳條.

29)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2, 忠烈王 28年 4月 辛未條.

30)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3, 忠宣王 2年 6月 壬子條.

31)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4, 忠宣王 3年 8月 癸巳條.

그러나 忠宣王은 도중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瀋王으로 轉封하게 되어 그 寫經佛事는 새로 즉위한 忠肅王이 이어받았다. 忠肅王 元年(1314) 5月 庚寅日에는 왕이 松廣寺의 승려 萬恒을 銀字院에 방문시켰다는 기록³³⁾이 있고 그와 더불어 上王도 모후의 명유천도를 위해 旻天寺에 이어 演福寺, 龍泉寺, 安國寺 등에서 불사를 행하였다. 또 王은 萬恒을 불러 演禪寺에서 함께 點燈하기를 무릇 8일간이나 계속하여 그 사경 불사를 돕게 하는 등 이러한 사경 불사는 忠肅王 7年(1320)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그 밖에 忠宣王代의 작품으로 紺紙에 銀字와 金字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는 折帖本인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이 전해진다. 그 권말의 간행기록은 글씨의 마멸이 심해 내용 파악이 힘들지만, 일부 확인되는 三重大匡의 직위에서 『高麗史』 百官志에 나타나는 ‘文散條에 忠烈王 34년, 忠宣王에 의해 改制할 때 正一品을 三重大匡으로 칭하였다는 기록에 의하여 이 작품이 충선왕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문기록 중 ‘李也之不花’라는 몽고식 이름으로 표현한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사경은 친원 세력에 의해 發願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⁴⁾

同王 6년(1319) 6월 紺紙에 금으로 쓰여진 『佛說佛名經』 권10도 현존하고 있고 이 경의 발원문도 『攝大乘論釋論』의 내용과 같다. 同王 12年(1325)에는 卷子本으로 紺紙에 銀字로 쓴 『阿育王太子法益壤目因緣經』이 사성되었고, 현재 日本 京都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경의 권말기록은 ‘泰定二年乙丑四月日 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으로 나타나는데, 표지 왼쪽 구석에 ‘禽’이라는 函次의 표시가 있고, 표지가 끝나는 부분에 正奄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이 승려가 書者인 것으로 추정된다.³⁵⁾

14세기 전반기의 사경으로는 이 외에도 경주 祇林寺 佛腹藏에서 확인된 忠穆王 4年(1348)에 추정되는 椽紙銀字로 사성한 『大般若波羅蜜多經』 卷210이 있다. 이 사경은 大般若經 600권 가운데 卷210으로 정확한 사성년도는 알 수 없으나 卷末에 ‘戊子四月廿二日書’의 기록으로 보아 忠穆王 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大般若波羅蜜多經』 卷259와 卷561은 紺紙에 銀으로 쓰여졌으며 표지에는 감색마탕에 금은니의 寶相華紋이 묘사되어 있고 뒷표지는 탈락되고 없다. 卷首題와 卷末題 아래에는 각각 ‘餘’자와 ‘果’자의 千字文 函次表示가 되어 있다. 그 외에 『放光般若波羅蜜多經』 卷12, 『佛說大方廣十輪經』 卷5, 『等集衆德三昧經』 卷下가 모두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보물 959호로 일괄 지정되어 祇林寺에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寫經 조성의 유행이 왕실에서부터 사찰, 민간으로 점차 확산되어 고려 말기 恭讓王代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비단 의복과 金銀珠玉의 粧飾을 금하고 사치풍속을 단속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여 巨家와 世族으로 하여금 金銀으로 경문을 베끼는 것을 금지시켰³⁶⁾ 만큼 사경이 유행하였다.

32)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4, 忠宣王 4年 8月 甲戌條.

33) 『高麗史』 卷3, 『世家』 卷第34, 忠肅王 元年 5月 庚寅條.

34)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1986), 401-402.

35) 權熹耕, “日本에 現存하는 高麗寫經,” 『考古美術』 132(1976. 12), 17.

36) 『高麗史』 卷7, 『志3』 39卷, 刑法 / 禁令.

4. 현존의 주요 寫經

현존하는 高麗 사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은 卷子本으로 현재 日本京都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大寶積經』 卷32이다. 『大寶積經』은 보배를 모아 놓은 큰 경이라는 뜻으로 인간 세상의 모든 번뇌를 벗어나 열반에 들기 위한 방법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다. 이 경전을 紺紙에 金으로 뒤에 작성한 권말기록은 다음과 같다.

菩薩戒子南瞻部洲高麗國應天啓聖靜德 王太后黃甫氏
大中大夫尙書左僕射判隴西縣開國男食邑三百戶 金致陽
同心發願寫成金字大藏經
統和二十四年七月 日 謹記
書者 崔 成朔
用紙十六幅
初校花嚴業了眞炤世大師 曇昱
重校花嚴業大師 緣密

이 권말기록에 의해 景宗의 妃이며 穆宗의 모후인 皇甫氏가 그의 총신 金致陽과 함께 발원하여 穆宗 9년(1006) 7월경에 崔成朔이 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경은 單經이 아니라 卷首題 아래 ‘帝’字의 函次를 매겨 사성한 金字大藏經이며 왕실이 발원, 사성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후 忠烈王朝에 사성된 금자대장경으로는 日本과 中國에 소장된 『佛說雜藏經』과 『妙法聖念處經』을 들 수 있다.

4.1 현존의 金字大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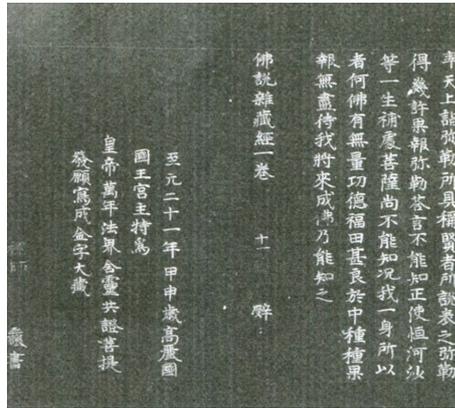
4.1.1 1284년 『佛說雜藏經』

『佛說雜藏經』은 부처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설교한 경’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은 전생에 착하거나 또는 악한 일을 한 결과로 현세에 죄와 복의 값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경은 『顯識論』과 같은 해(1284)에 사성한 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사경의 앞부분이 결실되어 있으며 현재의 남은 상태는 27.9×55.5cm의 卷軸本 斷片이어서 권말부분에 불과하다. 이 사경은 日本 京都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남은 부분은 일부의 단편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본래는 900cm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³⁷⁾, 書者는 禪師였던 之讓임을 알 수 있으나 어떤 인물인지

37) 張忠植, “高麗國王, 宮主 發願 金字大藏經考,” 『불교와 역사』 (서울: 한국불교원, 1991), 717-719.
黃壽永, “高麗金書大藏經의 初見,” 제32회 全國歷史學大會(자료) (1989년 5월 27일), 386-391.

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권말부분은 다음과 같다.



至元二十一年 甲申歲 高麗國
 國王 宮主 特爲
 皇帝萬年 法界含靈 共證菩提
 發願寫成 金字大藏
 禪師 之讓書

<그림 1> 1284년 國王發願의 金字大藏

4.1.2 1285년 『妙法聖念處經』

『妙法聖念處經』은 ‘불교의 묘한 지혜를 가지고 인간세상을 관찰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인간 세상의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과 악행을 버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착한 덕행을 쌓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전의 사성은 『佛說雜藏經』이 사성된 이듬해인 同王 11년(1285)에 이루어졌으며 그 권말 부분은 다음과 같다.

至元二十二年 乙酉歲高麗國
 國王宮主特爲
 皇帝萬年 四海和平 法界共生 共證
 菩提 發願寫成 金字大藏
 式目錄事大盈署令 金必爲書

권말의 기록으로 보아 이 사경 역시 『佛說雜藏經』과 마찬가지로 고려 국왕과 宮主의 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발원문 중 ‘皇帝萬年’은 그대로이며 다만 ‘四海和平’이 추가되었을 뿐 그 구성은 다를 것이 없고, 필사자는 사경승이 아닌 式目都監의 錄事로서 大盈署의 從七品인 令의 위치에 있던 金必爲라는 인물로 되어 있다. 특히 式目都監은 文宗 때 제정되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종의 입법기관이었으나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장경의 寫成에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동원되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경의 현재 소장처는 中國 北京의 故宮博物館³⁸⁾으로 알려져 있다.

4.1.3 1319년 『攝大乘論釋論』卷3, 『佛說佛名經』卷10, 『聖佛母般若波羅密多九頌精義論』卷上

이 기간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 忠肅王 6년(1319) 5월에 瀋王 王璋(忠宣王)이 先姑齊國大長公主의 追福과 先考와 宗祖의 薦度成佛을 發願하여 紺紙에 金으로 사성한 『攝大乘論釋論』卷3을 비롯하여 『佛說佛名經』卷10, 『聖佛母般若波羅密多九頌精義論』卷上 등이 전해지고 있다.

『攝大乘論釋論』은 ‘攝大乘論’을 해석한 論이라는 뜻으로, 의식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이 의식에 의하여 모든 것이 產生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아라야식과 6바라밀, 보살10지, 계율, 선정, 지혜, 열반, 부처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소승에 비한 대승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원문에 따르면 忠宣王이 先妣 齊國公主와 先考 忠烈王과 內外宗室, 그리고 자신과 아들 王燾(忠肅王), 王暉(延安君), 王煦 등을 위하여 축원하고 있다. 瀋王 王璋은 忠宣王을 말하는데, 忠宣王은 元나라로부터 瀋陽王이란 封爵을 받은 사실이 있어 발원문에서 瀋王王璋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佛說佛名經』은 ‘부처가 부처들의 이름에 대하여 설교한 경’이라는 뜻으로 많은 부처의 이름을 열거하고 선도들이 이 부처의 이름을 읽고 외우면 온갖 재난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 뿐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과를 씻고 장차 극락 세계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경은 앞의 『攝大乘論釋論』卷3과 동일한 체제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작년월 및 發願文의 내용과 變相圖의 양식 및 표지와 권미의 木軸이 결실된 것까지 동일하다.

『聖佛母般若波羅密多九頌精義論』卷上의 발원문도 역시 『攝大乘論釋論』卷3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寫成記와 變相圖를 수록한 1장과 본문을 수록한 4장, 도합 5장의 길이가 짧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⁴⁰⁾

4.2 현존의 銀字大藏

국왕발원의 금은자 대장경의 사성은 元干涉期에 해당하는 ‘忠’자가 이름에 들어간 임금 때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忠烈王은 집권 초기에 은자 대장경을 먼저 사성하였고, 그 뒤 금자 대장경의 사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銀字大藏經이란 표현이 처음 언급된 것은 高麗 定宗 元年(946)에 王堯(정종)가 발심하여 ‘銀字藏經’을 敬造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遼東行部志』⁴¹⁾의 第7張의 기록부터로 볼 수 있다.

특히 銀字大藏은 역사기록과 실물이 확인되는 것이 많아서 대체로 충렬왕 이후 시기의 국왕발원 은자대장경으로 『不空羂索神變真言經』卷第13, 『文殊師利問菩提經』, 『佛說菩薩本行經』卷下와 『菩薩善戒經』卷5, 『顯識論』 등이 전해지고 있다.

38) 張忠植, 『한국사경 연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64.; 일본 九州大學의 菊竹淳一 교수의 자료제공(黃壽永, 寫經의 歷史, 1980에서 인용)

39) 張忠植, “麗金銀字大藏經,”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下)』(서울: 伽山佛教文化振興院, 1992), 313-314.

40) 千惠鳳, “瀋王 王璋發願의 金字大藏 三種,” 『書誌學報』創刊號(1990. 6),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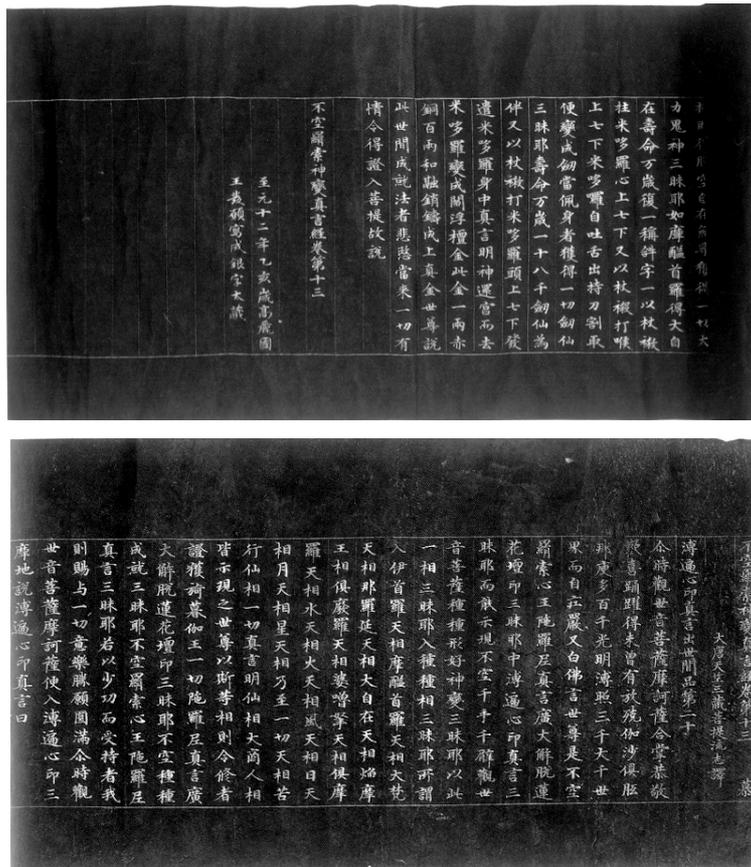
41) 王寂(金)撰, 『遼東行部志』“…乙卯 觀銀字藏經 上題云 高麗王 王堯發心敬造…”

4.2.1 1275년 『不空羂索神變眞言經』 卷第13

高麗時代 사경으로 현재까지 그 실물이 남아 전하는 것은 대부분이 高麗後期 충렬왕대 이후의 작품으로 국왕발원이나 개인발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忠烈王 元年(1275)에 사성된 사경으로 『不空羂索神變眞言經』 卷第13이 남아 전한다. 이 經은 크기가 30.3×10.2cm로 국보 제21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권말 부분에

至元十二年乙亥歲高麗國 /
王發願寫成銀字太藏 /

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 張次의 이음부분에는 ‘不空羂索經第十三卷 第十六張 慕’ 등과 같은 체제로 연결하고 經卷의 뒷면에는 ‘三重大師 安諦書’라는 書寫者의 표시가 있다. 卷頭에는 神將像을 가늘게 그리고 경문 역시 銀으로 썼다. 이 경은 대장경 함차 중 ‘慕’函에 해당한다.



<그림 2> 1275년 忠烈王 發願의 銀字太藏 卷末(上) 및 卷首(下)

이 경전의 내용은 不空羂索觀音의 신기한 주문에 대한 經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나오는 不空羂索觀音은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해매는 모든 중생을 자비심의 그물로 빠짐없이 구원할 것을 소원으로 세운 보살이다. 이 경에는 不空羂索觀音菩薩의 여러 가지 주문과 이 주문을 외우는 법, 재단을 만드는 법, 손가락 짓을 하는 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고려국왕이 발원한 금은자대장경의 여러 종 가운데 최초의 것이다.

4.2.2 1276년 『文殊師利問菩提經』

忠烈王 2年(1276)에 사성한 『文殊師利問菩提經』은 일명 『伽耶山頂經』이라고도 하며 사람들이 인간 세상을 떠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열반에 가기 위해 닦아야 할 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경은 원래 卷子本이었으나 現在는 折帖本으로 改造되어 日本 文化廳에 소장되어 있다. 권말의 기록은 ‘至元十三年丙子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으로 『不空羂索神變眞言經』 卷第13의 권말과 유사하며, 書者는 裏書의 기록에서 확인된 三重大師였던 安諦로 『不空羂索神變眞言經』을 쓴 서사자와 동일 인물이다.

이 사경의 형태는 후대에 보수할 때 7行 14字의 折本形으로 바뀌어졌을 것으로 현재 絹織으로 만들어진 표지의 背面에 본래의 표지였던 紺紙銀泥의 實相華文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⁴²⁾

4.2.3 1278년 『佛說菩薩本行經』 卷下

忠烈王 4年(1278)에 사성된 『佛說菩薩本行經』 卷下는 ‘부처가 보살로서 불도를 닦던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경’이라는 뜻으로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였다는 부처의 전생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리움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는 이 사경은 변상이 없는 작품으로 본문 중 권말의 발원문만 남았고, 아래위의 天地 여백마저 잘려져 나가는 손상으로 사경의 크기조차 짐작할 수 없지만 대장경 중의 함치는 ‘覆’임을 알 수 있다. 권수와 권말 기록은 다음과 같다.

[卷首]
佛說菩薩本行經 卷下
失譯人名今附東晉錄
[卷末]
至元十五年戊寅高麗國王發願
寫成銀字大藏
菩薩本行經卷下 第十七丈 覆
禪師 廻[桓]

42)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1986), 385-386.

4.2.4 1280년 『菩薩善戒經』 卷第8

忠烈王 6年(1280)에 사성된 『菩薩善戒經』 卷第8은 ‘보살의 좋은 계율을 설교한 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존의 상태는 卷首가 떨어져 나가 표지와 변상은 없으나, 內書의 기록에 의하여 忠烈王 2년에 三重大師로서 『文殊師利問菩提經』을 書寫한 安諦가 4년 후 이 사경을 제작할 때는 禪師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淸源寺 불상의 腹藏에서 나온 이 사경의 內書와 권말기록은 다음과 같다.

[內書]
禪師 安諦
菩薩善戒經 卷第八
[卷末]
至元十七年庚辰歲高麗國
王發願寫成銀字大藏



<그림 3> 1280年 國王發願의 銀字大藏

4.2.5 1284년 『顯識論』

忠烈王 10년(1284)에 사성된 『顯識論』은 모든 것을 의식의 작용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輪回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마음을 닦을 것’을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서 顯識이란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말로서 論에서는 있지도 않은 이 세상을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의식을 뜻한다. 이 사경은 延世大圖書館 所藏本이며 크기가 27.5×23.5cm로 『文殊師利問菩提經』과 같이 折本으로 변형되어 있다. 第一卷은 권수로부터 경전의 순서대로 붙여 만든 것으로 권말은 ‘至元二十一年甲申 / 高麗國王發願寫成 / 銀字大藏’으로 되어 있고, 第2卷은 권말의 발원문을 맨 앞에다 오려 붙이고 그 다음 第1卷의 나머지 경전을 순서대로 붙여 만들었는데 맨 끝에 본래의 卷末 發願文 대신 ‘光緒五年己卯 春三月 十二日 東洛書’라는 권말을 넣고 있어 光緒 5年(1879)에 東洛이라는 인물에 의해 지금의 형태로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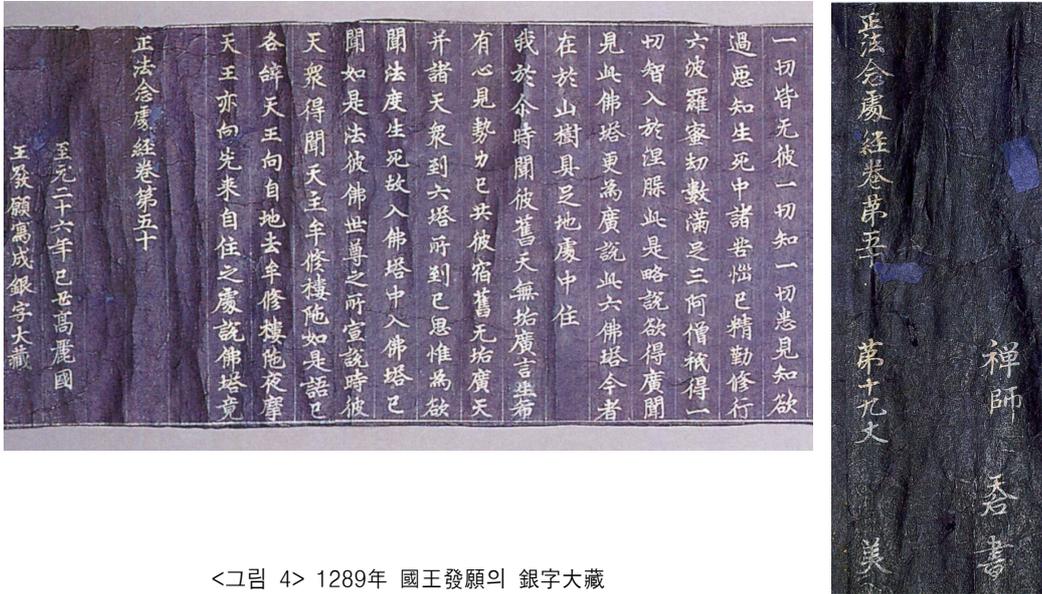
4.2.6 1289년 『正法念處經』 卷第50

忠烈王 15년(1289)에 사성된 『正法念處經』 卷第50도 아래위가 손상되었고 말미 몇 장만이 남아 전해진다. 이 『正法念處經』의 내용은 ‘바른 교리로 관찰하는 경’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지옥, 아귀, 짐승, 아수라, 하늘 세상의 정경과 그곳에 태어날 서로 다른 인연을 들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因果의 교리를 담고 있다. 이 경의 漢譯은 瞿淡般若流支에 의해 이루어졌고 六道生死의 인과를 밝히고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 고통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으며 궁극으로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자세히 설하고 있다.

한편 불교사적 측면에서 이 경전은 小乘經典에서 大乘經典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윤회와 업보사상을 바탕으로 小乘과 大乘의 철학을 집대성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는 다르게 고려 후기 대승불교의 발달과정상에서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불교의 학문적 발달이 認識論과 심리학적 분석, 논리적 탐구와 증명 또는 선종의 頓悟 등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內觀에 의해 생사윤회를 관찰한다는 정신적인 경험을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경의 권말기록에는 ‘至元二十六年己丑 高麗國 / 王 發願寫成 銀字大藏’으로 나타나며, 이와 함께 제19丈의 뒷면에는 ‘禪師 天后書’라는 필사자의 기록 및 장차와 함께 ‘美’字的 함차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43)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1986), 388.



<그림 4> 1289年 國王發願의 銀字大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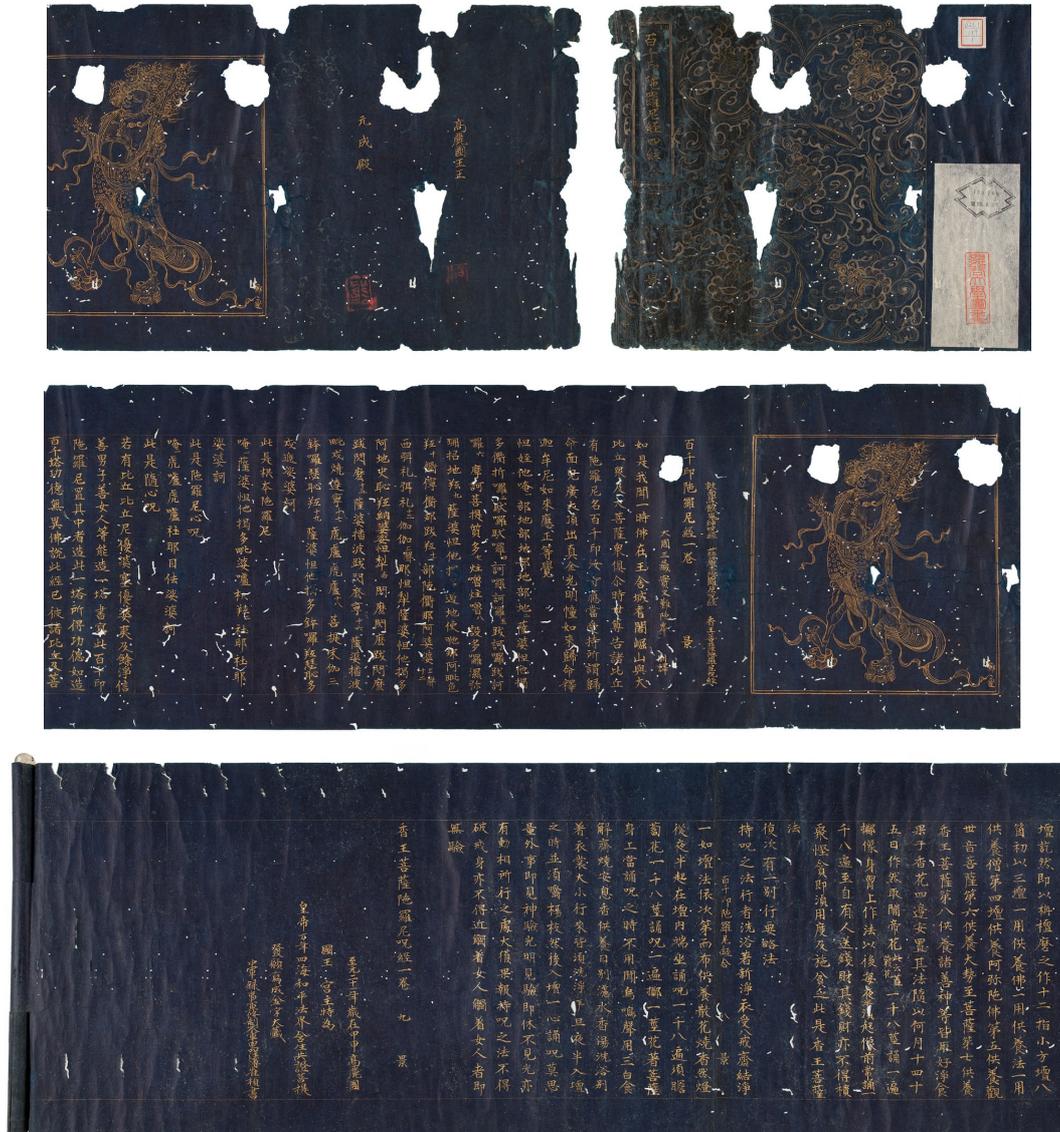
5.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특징

형태와 체재면에서 고려시대의 대장경이나 국왕·왕실발원의 경전은 주로 1행 14字 내지 1행 17字로 사성되었다. 발원문은 관직과 성명을 먼저 기록하고 다음에 聖壽天長, 國王萬壽를 빌던 高麗전기의 발원문 양식과는 달리, 몽고의 지배하에 들면서 발원문의 양식도 바뀌어 皇帝萬年, 皇后, 皇太子의 天壽를 빌고 그 다음 高麗 國王의 天壽를 빌고, 또한 발원자 자신의 福樂 등을 빌고 있다. 그리고 끝에는 발원자, 시재자의 관직과 성명이 적혀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다. 해당 寫經의 所藏處는 日本 龍谷大學校 圖書館이다.

5.1 形態事項

5.1.1 체제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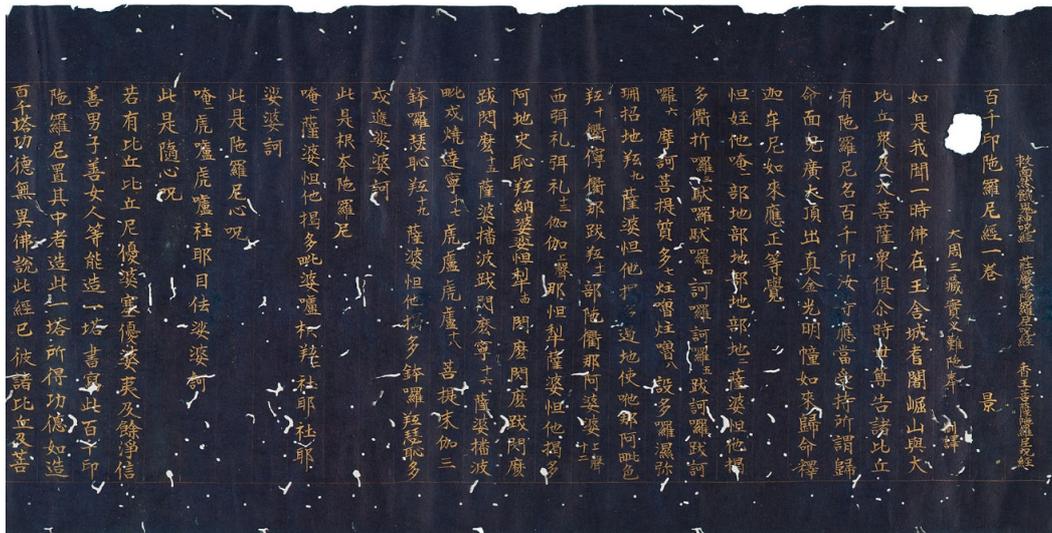
이 경전의 크기는 紙高는 29.6cm, 길이는 600.1cm이며 보존의 상태는 본문과 아래위 여백에 蟲害로 인한 작은 穿孔 등의 훼손은 있으나 본문의 내용과 전체를 확인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또 다른 국왕발원 사경의 예와 같이 뒷면에 書寫者나 張次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본문에 쓰여진 匡高의 길이는 21.9cm, 1장의 길이는 대략 60cm이다.



<그림 5>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表紙畫 및 變相畫, 卷首 및 卷末

裝幀의 상태에서 앞 끝단에 있어야 할 標竹과 標帶는 훼손과 逸失로 없어졌지만 권말의 軸은 양쪽 끝을 水晶으로 장식하였다. 표지의 書名은 題籤과 유사하게 雙邊의 四角 테두리를 그리고 위 여백에 開法藏眞言인 ‘鶴立蛇橫(옴아라남아라다)’을 표시하고 그 아래 서명인 ‘百千印陀羅尼四經 合’을 金泥로 썼다. 좌하단의 二重圓 안에는 ‘景’字라는 함차표시가 있다. 표지화의 안 쪽에는 藏書印인 [龍谷大學圖書]와 등록번호, 청구번호가 첨부되어 있다.

본문의 바탕은 靑紙 즉 紺紙에 글자는 金泥로 쓰고 서체는 楷書體이며 본문 중 小字 注釋은 雙行으로 기록하였다. 본문의 체제 중 張別의 行款과 行字數는 金泥 細線으로 上下單邊에 界線을 그렸고 張次의 연결부분에는 合部의 題目과 張次의 숫자만을 쓰고 ‘丈, 張, 幅, 卜’과 같은 단위는 표시하지 않았다. 그 아래 부분에는 函次인 ‘景’字를 기입하였다. 일부 국왕발원 사경에서 뒷면에 장차와 서사자 등이 기록된 것과는 다르다.



<그림 6>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卷首 부분

또 표지화의 뒷면이 되는 裏面에는 발원의 주체인 國王의 手決과 齊國大長公主를 나타내는 전각인 ‘元成殿’이란 기록아래 印章을 날인하였다. 이후 神將像과 본문이 이어진다.

본문은 張에 따라 行數와 字數의 드나듦이 있고 본문 중 5곳에서 1차 필사한 다음 지우고 다시 교정한 부분이 보인다. 개별 장별로 行수와 연결부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차	크기(cm)	비고
卷首張 : [表紙 및 變相圖]	47.2	
第1張(32行) 張尾題	63.4	
第2張(32行) 張尾題 : 百千印陀羅尼經合 二 景	64.8	
第3張(32行) 張尾題 : 百千印陀羅尼經合 三 景	64.3	
第4張(32行) 張尾題 : 百千印陀羅尼經合 四 景	64.6	行間
第5張(32行) 張尾題 : 百千印陀羅尼經合 五 景	64.5	2cm
第6張(29行) 張尾題 : 百千印陀羅尼經合 六 景	58.7	
第7張(29行) 張尾題 : 百千印陀羅尼經合 七 景	58.6	
第8張(29行) 張尾題 : 百千印陀羅尼經合 八 景	58.3	
第9張(28行) 張尾題 : 없음, 卷末 5행의 공백	55.7	

1284년 忠烈王, 元成公主 발원 金字大藏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연구

내용상 여백 行을 제외한 순수한 본문의 분량은 百千印陀羅尼經 31行,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71行, 佛說甘露陀羅尼 7行, 莊嚴王陀羅尼呪經 94行, 香王菩薩陀羅尼 49行, 發願文 5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佛說甘露陀羅尼呪 7行은 별도의 卷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1行 17字의 기본 행자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의 행에서는 16字 혹은 18字, 19字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 이를 경전별 위치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각 경전별 행자수의 차이

經典名	全體行數	16字	18字	19字
百千印陀羅尼經	31行		28행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71行	13행	23행, 27행, 29행, 49행, 68행	
佛說甘露陀羅尼呪	7行		5행	
莊嚴王陀羅尼呪經	94行	8행, 13행, 14행, 16행, 19행, 82행, 86행	18행, 28행, 32행, 37행	
香王菩薩陀羅尼	49行			32행

5.1.2 本文의 對校

이 사경을 재조대장경과의 교감, 대조해보면 경문 자체의 추가나 탈락 등은 심하지 않고, 이체자는 일부 사용되었으나, 대체로 재조대장경의 본문과 차이가 없다. 다만, 則天武后(625~705년)의 아버지 이름인 ‘武士華’를 공경하는 의미에서 ‘華’字를 ‘花’字로 避諱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표 2> 高麗藏 再雕本과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교감대조

① 字의 追加, 脫落, 異字, 避諱, 移動

경명	張次	行	字	寫經	再雕本	備考
百千印陀羅尼經	1	8	3	兒	貌	異
		9	10-17		卽說根本陀羅尼曰	脫
		12	13	嚕	魯	異
		12	15	嚕	魯	異
		16	4	恥	耻	異
		16	6-9	納婆娑怛		수정흔적
		19	4	恥	耻	異
		19	17	瑟		수정흔적
		19	18	恥	耻	異
		20	2	遞	遞	異
		22	11	枳	扱	異
		31	6	脩	修	異
33	8-9	一卷		追		

경명	張次	行	字	寫經	再雕本	備考
救面然餓鬼 陀羅尼神呪經	2	35	1-2		佛說	脫
		35	17		羔	脫
		36	7		唐	脫
		38	14	巾	匣	異
		44	3	災	灾	異
	54	7	終	終	異	
	3	74	4	縛	縛	異
		74	10		去聲呼之	脫
		78	4	臂	辟	異
	4	78	8	盤	槃	異
		98	8	花	華	避諱
		99	5	花	華	避諱
		105	1-2		佛說	脫
佛說甘露 陀羅尼呪	4	105	12-13	一卷		追
		107	5		經	脫
莊嚴王 陀羅尼呪經	4	111	17	滴	滄	異
		115	1-2		佛說	脫
		115	17		羔	脫
		120	17	莊	莊	異
		121	13	花	華	避諱
		122	5-8	九, 月互		수정흔적
	5	125	4	萬	万	異
		128	13	於	于	異
		130	1-4	勝妙等持		수정흔적
		130	9	蓋	盖	異
		135	16	著(저)	着(착)	異
		136	7	花	華	避諱
	6	136	12	蓋	盖	異
		151	12	暫(장)	暫(잡)	異
		163	6	垢	垢	異
		167	17	富	富	異
		168	7	無	无	異
		168	14	無	无	異
	7	177	6	花	華	避諱
		177	11	蓋	盖	異
		181	12	底	底	異
		181	14	囁	囁	異
		183	1	恥	耻	異
		183	9	哺	脯	異
	7	190	11	萬	万	異
		196	15	垢	垢	異
		197	13	花	華	避諱
		199	9, 12	花	華	避諱
		201	6	終	終	異
		204	6	萬	万	異
208	1-2		佛說	脫		
208	9-10	一卷		追		

5.2 表紙畫와 卷首의 神將像

5.2.1 表紙畫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표지화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경표지화들과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나, 기본적인 체제면에서 국왕발원사경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百千印陀羅尼經(合部)』表紙 자체의 외곽은 굵은 태선과 얇은 세선의 각 2줄로 4면을 이루고 있다. 표지화 왼쪽의 위 아래로 서명을 밝힌 제침과 아래에 이 사경의 函次를 표시하고 있다. 제침의 윤곽선 또한 태선과 세선 2줄로 구획을 짓고 있으며, 상·하단부 모두 仰蓮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단부의 연꽃 모양은 단연 왕관 모양을 많이 닮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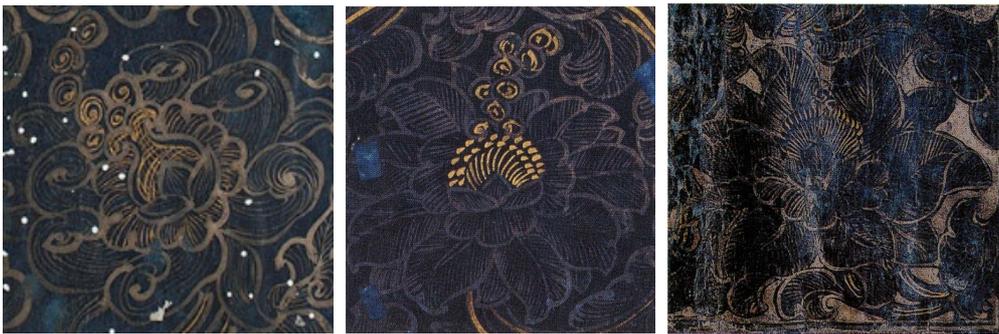
<그림 7> 『百千印陀羅尼經(合部)』表紙 전체 및 題簽부분 확대

제침의 크기는 13.5×2.9cm이며 윤곽선 내부에 鶴立蛇橫의 표시아래 ‘百千印陀羅尼經四經合’이라는 서명이 확인된다. 제침 아래에는 2줄의 원형안에 ‘景’字的 함차가 확인되며, 원의 지름은 3cm이다.

44) 이 때의 行數는 가장 앞의 空行과 小字로 쓴 合部經 3種의 1行을 포함한 行의 차례임.

그 원형을 3릉 연판 3개가 받쳐든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다. 표지 내부는 5송이의 연꽃과 당초줄기가 이를 휘감는 모습으로 위아래 각 2송이와 중앙에 한 송이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리움미술관 소장 『不空羅索神變眞言經』 및 염승익 발원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妙法蓮華經』의 표지와도 상통한다. 『文殊師利問菩提經』의 표지화의 경우도 현재의 절첩형식으로 그 모양이 바뀌기 이전에는 5송이가 그려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는 절반이 잘려나간 상태로 표지의 제첩을 확인할 수 없다.

대표되는 연꽃의 심방부터 살펴보면, 꽃술받침을 ‘山’字形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주위로 2릉 혹은 3릉의 화관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경우는 銀泥로 구획선을 만들고 그 구획선의 위쪽을 튀워 양쪽으로 外班시켜 마치 양 귀가 옆으로 벌어진 것과 같은 완벽한 석류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방 내부를 보면, 점열문이 없이 격자무늬로 채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꽃봉우리에서 올라오는 꽃향기는 거의 은니로 윤곽선을 그리고 金泥로 그 안을 다시 원형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百千印陀羅尼經』

『文殊師利問菩提經』

『佛說大吉相陀羅尼經』

<그림 8> 각 경전의 연꽃 심방 부분

연판의 모습도 살펴보면, 대체로 다른 金銀字 寫經의 표지화에서 보이는 연판의 형상은 한가운데가 쪽 들어가게 그려지고, 이 부분을 銀泥線으로 중심 葉脈을 긋고 이를 대칭사선으로 그어 잎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잎이 滿開하여 뒤로 살짝 젖혀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百千印陀羅尼經(合部)』 화판의 경우 아직 조금 덜 피어서 꽃잎의 끝부분이 아직 다 벌어지기 전인 것처럼 돌돌 말려 있으며, 중앙 엽맥도 표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화면에서 연꽃 사이사이를 장식하는 蓮唐草 줄기에 달린 잎은 바로 펼쳐있는 것과 입체적으로 뒤로 말려있는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잎의 표현은 윤곽선 안을 사선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동시대 사경표지화들의 표현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충숙왕대 제작된 왕실발원 사경의 표지화들은 충렬왕대 작품들에 비해 제첩의 윤곽선

이 태선-세선 혹은 세선-태선-세선으로 더욱 두꺼워지고 장식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제첩 아래 함차의 표시를 장식하던 연판부분이 간략화 되었다.

표지를 장식하는 연꽃의 수량과 형식적인 부분에도 차이를 보인다. 원래 5송이었던 연꽃이 3송이 또는 2송이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방의 표현이나 연꽃의 ‘山’字形이 꽃술받침대는 타원형의 심방안에 포함되어 그려지며, 화판의 모습도 굉장히 도식화 되어 있다. 연판의 모습도 유연하지 못하고 매우 간략한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초줄기와 잎의 표현 또한 간략하게 처리된 점이 특징이다.

새로 발견된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表紙畫는 충렬왕대와 충숙왕대 제작된 국왕발원사경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은 물론, 명확한 간기를 통해 그 시기가 충렬왕대임을 감안할 때 연꽃의 처리라던가, 제첩 및 함차의 표시 등이 당시의 것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심방의 꽃술대를 격자무늬처럼 표현한 점, 연판의 모습을 아직 다 피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한 점 등은 새로운 스타일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5.2.2 卷首의 神將像

대체로 국왕발원사경에는 독존의 神將像(韋馱天像)이 變相畫로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경 또한 13세기 후반의 다른 金銀字寫經과 유사하고 크기는 21.6×20.4cm이다. 특히 神將像을 그린 畫員의 이름인 ‘鄭 [益迂(추정)]’란 기록이 그림의 우측 하단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文殊師利問菩提經』, 『不空羂索神變眞言經』 제13권, 염승익 발원의 『妙法蓮華經』 1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변상화에서 보여지는 신장상의 대체적인 방향은 안면과 신체 모두가 향좌를 향하고 있으나, 『不空羂索神變眞言經』과 『妙法蓮華經』의 경우 안면과 신체가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또한 頭部에는 기본적으로 火焰紋 장식이 있으며 추가로 그 속을 점열문으로 채워 넣어 장식미를 더한 것이 많다.

持物로 金剛杵를 들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어떤 손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들고 있는지는 동일하지 않다. 우선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경우는 『不空羂索神變眞言經』과 마찬가지로 왼손은 다섯 손가락을 짝 펴고, 오른손으로 金剛杵를 들고 있어 동일하다. 그러나 『百千印陀羅尼經』의 神將은, 金剛杵를 오른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다른 작품들과 비교된다. 상태가 좋지 않아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佛說大吉祥陀羅尼經』 合本の 변상과 『文殊師利問菩提經』의 神將은 양손으로 金剛杵를 세로로 받쳐 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된다. 양손을 이용해 持物을 든 변상에서는 목걸이 장식인 瓔珞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神衆은 모두 裸身에 하체는 裙衣를 두르고 상체는 天衣를 걸쳤다. 裙衣는 대체로 앞부분이 짧고 뒷부분이 긴 모양이며, 주로 회오리형을 이루는 원형이나 이중원형문이 주류를 이룬다. 『百千印陀羅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은 원형으로만 장식되고 있으나, 袿衣의 아랫단의 장식은 격자무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양쪽 어깨에 걸쳐진 天衣의 나부끼는 형상은 갖가지 형태이나, 그 세련됨이 시간이 지날수록 둔탁해지는 모양새이다.

神將像의 두 발은 대체로 양발을 벌려 답좌를 밟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百千印陀羅尼經』과 『不空縑索神變眞言經』은 똑같이 왼발은 뒷꿈치만 답좌에 닿아 발바닥이 모두 드러나 보이는 형상을 하고 오른발은 전체가 답좌에 얹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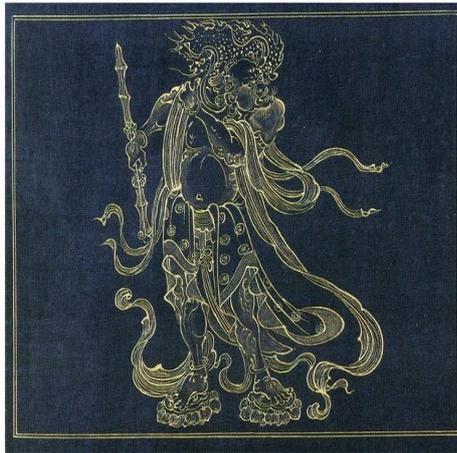
변상화의 테두리는 4면이 모두 세선 2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장식은 없다. 이는 이미 경전을 수호하는 신장상이 금강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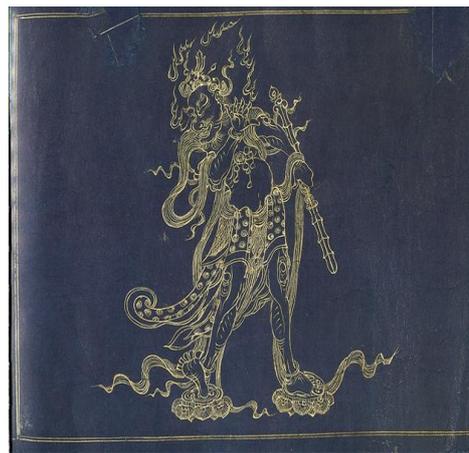
『文殊師利問菩提經』(1276) 銀字大藏



『百千印陀羅尼經』(1284) 金字大藏



『妙法蓮華經』 제1권(1283) 복원본 銀字大藏



『不空縑索神變眞言經』 제13권(1275) 金字大藏

<그림 9> 각 경전의 神將像 표현



<그림 10> 畫員의 이름

5.3 裏面의 기록

이 부분의 기록은 다른 사경들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권말의 발원문과 기록이 있음에도 經의 앞머리 시작, 즉 표지화의 뒷면인 裏面에 ‘高麗國王王 [手決] / 元成殿 [印章]’을 밝혀둔 것은 忠烈王과 齊國大長公主의 직접적인 발원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金字大藏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대장경 卷軸 전체에 이러한 기록을 하였을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 경전만은 국왕과 공주가 함께 조성과 발원에 직접 관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기록 중 ‘高麗國王王’ 다음의 수결은 충렬왕의 두 번째 고친 諱인 ‘瞻(넉넉할 춘)’字의 변형된 수결로 왕은 처음에는 ‘謹(참 심)’자를 사용하다가 ‘瞻’자로 바꾸었고 이후 마지막에는 ‘距(밝을 거)’로 바꾸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1276년 11월 30일 『元史』 권9 本紀9 世祖6
고려 국왕 王愷이 判秘書寺 朱悅을 보내어 이름을 ‘瞻’⁴⁵⁾으로 바꾸었음을 보고하였다.
- 2) 1276년 11월 30일 『元高麗紀事』
至元 13年(1276) 11월, 왕심(王愷, 王謹, 忠烈王)이 그 判秘書寺事 朱悅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王瞻으로 개명하였음을 아뢰었다.
- 3) 『高麗史』 28 世家 권제28, 忠烈王 총서
忠烈王의 휘는 ‘距’이며 옛 휘는 ‘謹’ 또는 ‘瞻’이다. 元宗의 長子이고, 어머니는 順敬太后金氏이며 高宗 23년(1236) 병신 2월에 태어났다. 高宗 46년(1259) 6월에 高宗이 죽자, 당시 원종은 太子로서 元에 입조하였기 때문에, 왕은 그 때 太孫으로서 조부인 高宗의 遺命을 받아 國事를 임시로 책임졌다. 원종 원년(1260) 8월에 太子로 책봉되었고, 원종 13년(1272)에 원에 갔다. 원종 15년(1274)에 元世祖의 딸 忽都魯揭里迷失(쿠투루칼리미시) 공주와 결혼하였으며, 그 해 6월에 원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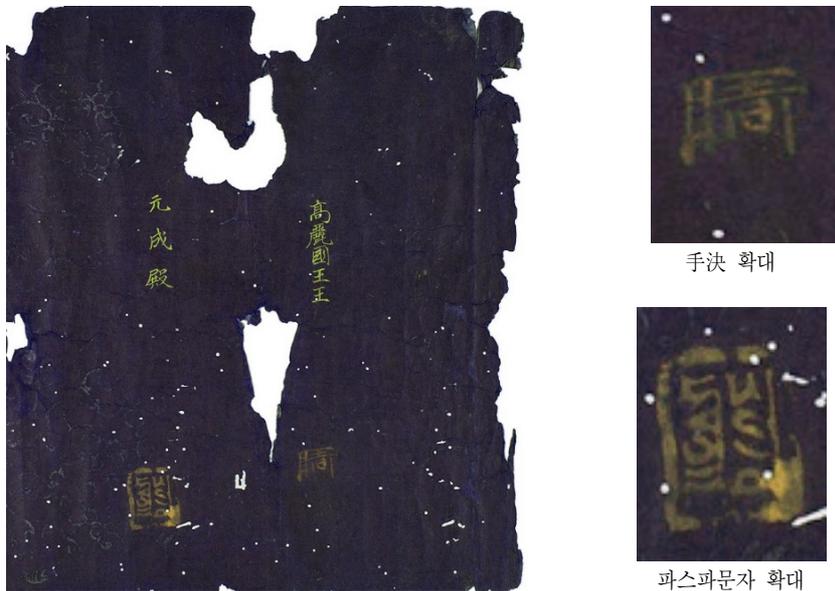
45) 원문에는 ‘王瞻’으로 되어 있으나 『元史』 卷16 本紀16, 世祖 13 至元 28年 5月 己未, 『高麗史』 卷28 『世家』 卷第28, 忠烈王 총서에는 ‘王瞻’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죽자 왕으로 추대되었다.

4) 1293년 2월 『元高麗紀事』

至元 30年(1293) 2월, 중서성의 보고에서 고려왕 王昚(충렬왕)이 사신을 보내와 이름을 다시 王昺로 개명하고 功臣號를 요청하므로 制書를 내려 特進 上柱國 開府儀同三司 征東行中書省左丞相 駙馬 高麗王 王昺(忠烈王)는 대대로 왕의 작위를 지키는 동안 元 皇室에 장가들었고 번병으로서의 공로도 받들어 떨쳤으니, 마땅히 포상하고 가상하게 여겨 推忠宣力定遠功臣이라는 호를 하사하고 나머지는 예전과 같도록 하였다.

즉, 이러한 기록에 의하여 朱書로 쓴 ‘昺(수결)’이라는 휘는 1276년 11월부터 1293년 2월까지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경의 조성 기록인 1284년과도 사용 시기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 11> 表紙畫의 裏面

한편 충렬왕의 수결과 함께 기록된 ‘元成殿’과 ‘[朱印(파스파문자; 封印, huun yin); 크기 2.6×1.7cm]’에서 元成殿은 齊國大長公主를 지칭하는 것으로 1275년 1월에 쿠두루칼리미시 공주를 冊封하여 元成公主로 삼자⁴⁶⁾ 백관이 모두 하례하였다. 그 궁궐을 敬成宮이라 하였으며, 殿閣을 元成殿이라 하였다. 府를 膺善府라 하고 官屬을 두었으며, 安東과 京山府를 湯沐邑으로 삼았다.⁴⁷⁾ 그녀는 그 뒤 元 成宗 즉위년인 1294년(충렬왕 20) 安平公主로 冊封되었으며, 元 武宗으로부터 1310년(충선왕 2) 齊國大長公主로 책봉받아 고려국왕비가 되었다.⁴⁸⁾

46) 『高麗史』 卷28, 『世家』 卷第28, 忠烈王 元年 1月 戊寅

47) 『高麗史』 卷89, 『列傳』 卷第2, 忠烈王 後妃 齊國大長公主

48) 『高麗史』 卷31, 『世家』 卷第31, 忠烈王 20年 6月 戊申

이러한 元成殿의 기록과 권말에 발원문에 나타난 ‘至元二十一年歲在甲申高麗國 / 國王 宮主特爲 / 皇帝萬年四海和平法界含生共證菩提’의 기록을 서로 연결해 보면 이때의 宮主는 齊國大長公主로 판단된다. 이미 1284년의 『佛說雜藏經』과 1285년의 『妙法聖念處經』에서 국왕, 궁주발원 사경을 검토한 선행의 연구에서는 당시의 宮主란 용어에 대하여 貞和宮主와 元成公主 중의 해당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당시의 元에 대한 거부감과 왕실 분위기 등에서 원성공주라는 공식적인 호칭보다 사경의 발원문과 같은 경우에는 正妃의 格으로 궁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⁹⁾

본 연구의 대상인 『百千印陁羅尼經(合部)』의 앞부분에서 忠烈王의 수결과 함께 元成殿의 封印이 나란히 날인되어 있는 점과 권말의 발원문에서의 국왕궁주 발원기록으로 볼 때 이때의 宮主는 자연스럽게 元成公主로 귀착된다.

한편 여기 着押된 忠烈王의 수결과 더불어 元成殿 印章의 文字가 파스파문자 ‘封印’인 점에서⁵⁰⁾ 다른 寫經에서 볼 수 없는 이 金字大藏의 특이한 성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관련 기록이 없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양식이 통상적이라면 약 6천 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자대장에 권축마다 이러한 절차와 양식이 필요하였을 것이나 이는 상식적으로 국왕이 일일이 手決하였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경 과정에서 파생된 특별한 의식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나 아니면 국왕, 궁주의 藏經道場 행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陁羅尼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전제할 수도 있으나 추가적인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성격을 특정하기 어렵다.

朱書로 쓰인 元成殿 아래 날인된 朱印의 문자는 파스파문자로서 ‘封印, □□□卩 □□□(hwng yin, huun yin)’으로 판독⁵¹⁾되며 이러한 양식의 인장은 이미 몇 차례의 연구를 통하여 보고된 바 있다. 그 중 照那斯圖⁵²⁾은 기록과 실물에 의하여 楷書體의 인장이 1268~1382년(정식은 1271년부터) 사이에 官方에서 사용되었고, 篆書體는 1277년부터라 하였다. 그 印文으로 예시된 95점의 자료로 볼 때 일부 자료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자료 중 파스파문자로 된 印文은 申祐의 至正 4年(1344) 王旨 告身⁵³⁾에서 ‘駙馬高麗國王印⁵⁴⁾의 篆書가 날인되어 있고 이 印(駙馬國王金印)은 忠烈王 8年(1282)에 元으로부터 하사

『高麗史』卷31, 『世家』卷第33, 忠宣王 2年 7月 乙未; 이정란,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의 冊封과 그 의미,” 『고려의 왕비 -내조자와 국모로서의 삶-』 (서울: 경인문화사, 2015), 197-230.

49) 張忠植, 『한국사경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박물관, 2007), 62-64.

50) 『高麗史』卷31, 『世家』卷第31, 忠烈王 21年 5月 丁亥.; 『元史』卷19 本紀19, 成宗 元貞 2年 11月. 위의 사료에 의하면 고려에서 그녀를 안평공주로 책봉한 뒤 공주에게 印章을 내려줄 것을 元에 요구하였으나 成宗이 이를 不許하였다는 기록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문서에 쓰여질 印章이 없었기 때문에 ‘封印’이라는 파스파문자의 朱印을 대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51) 이 글자의 판독은 단국대학교(천안) 이성규 교수와 거란문자관련 학술회의에 참여한 중국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52) 照那斯圖, “元八思巴字篆書官印集存,” 『文物資料叢刊』第1期(1977); 中國考古集成(東北卷, 元明清 2) (北京: 北京出版社, 1998), 996-1005.

朴英緣, “元代 八思巴 文獻 研究 導論,” 『大東文化研究』 제66집(2009) 참고.

53)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清州: 清州古印刷博物館, 2002), 497.

1284년 忠烈王, 元成公主 발원 金字大藏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연구

받은 것⁵⁵⁾이다. 또 다른 예로는 日本 京都 南禪寺에 고려 初雕大藏經과 함께 소장되어 있는 忠宣王과 관련된 瀋王府 印章이 있는 普寧寺版大藏經의 뒷면에도 파스파문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림 12> 普寧寺版大藏經 뒷면의 충선왕대 ‘瀋王府’印과 함께 쓰여진 파스파 문자의 예

5.4 卷首와 張尾 연결부분의 기록

이 경전의 본문 시작부분에 空行으로 띄어두고 小字로 救面然餓鬼神呪經, 莊嚴王陀羅尼呪經, 香王菩薩陀羅尼呪經을 나열한 후 행을 바꾸고 卷首題인 ‘百千印陀羅尼經一卷’과 函次인 ‘景’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제1행을 비워두는 형식은 大寶積經으로부터 초기의 사경들에서 볼 수 있고 14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 제목이 첫 행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각 장의 마지막 연결하는 부분에는 ‘百千印陀羅尼經合’이라는 經名과 張次인 ‘二~八’까지와 마지막 장에는 合 권명 중의 네 번째인 ‘香王菩薩陀羅尼呪經 一卷’ 아래 ‘九’를 쓰고 이어 函次인 ‘景’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제1장의 끝에는 經名과 張次, 函次 모두 기입하지 않았다.

卷首의 裏面과 본문의 앞까지 그려진 神將像까지가 1장에 해당하고 百千印陀羅尼經一卷이 시작하여 내용이 끝나는 부분까지가 제2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경의 조성자는 粧飾을 포함한 형태적인 구분보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張次를 배정하였다.

5.5 수록 내용

5.5.1 百千印陀羅尼經

이 경전의 卷首題는 ‘百千印陀羅尼經 一卷’이며 그 아래 ‘景’이라는 函次 표시가 있다. 다음 줄에

54) 川西裕也,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福岡:九州大學出版會, 2014), 82-84.
55) ① 至元 15年(1278) 7月 20日, 『元高麗紀事』. “七月二十日, 中書省奏, 改鑄駙馬高麗王印以賜膳 上從之”
② 『高麗史』卷29, 世家 卷第29, 忠烈王 9年 6月. “癸未 趙仁規還自元, 帝册王爲征東中書省左丞相, 依前駙馬高麗國王, 命與阿塔海共事”
③ 『高麗史』卷29, 世家 卷第29, 忠烈王 7年 3月. “乙卯 將軍 盧英이 元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왕을 駙馬國王으로 책봉한다는 詔書와 征東行中書省의 官印을 하사하였다(盧英은 河西國人으로 初名은 式篤兒였다).

는 저자사항으로 翻譯者인 ‘大周三藏⁵⁶⁾ 實叉難陀 奉制譯’이라는 기록이 있다.

實叉難陀⁵⁷⁾는 당나라 때 譯經僧으로 于闐國 출신이고, 學喜라 번역한다. 證聖 元年(695)에 『華嚴經』의 산스크리트본을 가져와 洛陽에서 菩提流支, 義淨과 함께 번역을 시작하였고 復禮와 法藏 등과 같이 聖曆 2年(699) 80권의 번역을 마쳤다. 이어 京師의 淸禪寺와 東都의 佛授記寺에서 『入楞伽經』과 『文殊授記經』 등 19부를 번역했으며, 그 밖에 『大方廣普賢所說經』 1卷, 『大方廣如來不思議境界經』 1卷, 『大方廣入如來智德不思議經』 1卷 등을 번역하였다.

長安 4年(704) 늙은 어머니를 위해 于闐國에 갔다가, 景龍 2年(708) 장안에 돌아와서 번역 사업에 종사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59세인 景雲 1년에 입적했다. 그가 번역한 『華嚴經』에는 則天武后가 쓴 序文이 있다.

이 경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은 부처가 왕사성 추봉산에서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리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선남자, 선여인 들에게 3개의 진언을 내주면서 탑을 하나 만들고 백천인다라니를 베껴 그 속에 안치시키면 그로부터 얻는 공덕이 마치 백천개의 탑을 세우는 것과 같고 부처가 설한 이경을 여러 비구, 보살, 衆天人, 아수라 등이 설법을 듣고 모두 큰 환희를 얻어 받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본문 중에 인용되고 있는 眞言은 3종으로 ① (此是) 根本陀羅尼 [11行], ② (此是) 陀羅尼心呪 [2行 19자], ③ (此是) 隨心呪 [1行 13자]이며 단락별 숫자가 순차적으로 계속된다.

經末題도 권수제와 같은 ‘百千印陀羅尼經 一卷’이며, 이후는 空行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경전에 표시된 ‘景’字의 함차도 再雕大藏經과 金藏에서는 ‘羊’函으로 차이가 나고, 房山石經 및 『新集藏經音義隨函錄』에서는 이 사경과 같이 ‘景’으로 나타난다.

5.5.2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이 경전의 卷首題는 앞 經典의 권말제 뒤에 한 줄을 비운 뒤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一卷’을 쓰고 앞의 百千印陀羅尼經과는 달리 函次의 표시가 없다. 그 翻譯者는 于闐三藏 實叉難陀 譯으로 역자는 같으나 소속 국가명이나 지역명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해당 경전은 8세기 초 우진국 출신의 학승 실차난타가 1권으로 번역한 것이며 그 내용은 아귀들을 구원하는 진언을 외우면 자신의 수명도 연장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설법하고 있다.

經의 末題는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一卷’이며 포함된 眞言은 ① 陀羅尼當自護身卽說呪 [2行]과 ② 佛說甘露陀羅尼呪 [3行]이다. 특히 甘露陀羅尼呪經은 대장경에 따라 독립된 경우도 있다. 그 진언의 표기는 ‘나모소로바야 다타아다 야 다나타 음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이며 내용은 오른손으로 물을 한 움큼 떠서 주문을 일곱 번 염송하고 공중에 뿌리면 그중의 물 한 방울이

56) 房山石經 및 본 寫經에서는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의 번역자를 ‘于闐三藏’이라 표기되어 있다.

57) 한보광, 임종욱,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서울: 이희문화사, 2011), 240.

변하여 열가마의 감로가 될 것이니 모든 아귀들이 그 감로를 마시면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모두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경은 再雕大藏經에서는 ‘羊’函에 배열되었고 중국 開寶藏에는 ‘羊’函, 金藏에는 ‘羔’函에 포함되었다. 이 경은 앞의 百千印陀羅尼經과 같이 ‘景’자로 표시되었고 역시 房山石經 등에서와 같다. 다른 大藏經들에서는 서명에 ‘佛說’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再雕大藏經과 金藏에서는 救面然餓鬼經으로 ‘陀羅尼神呪’의 표현이 빠졌고 역시 송대의 思溪藏(圓覺, 資福)과 磧沙藏에서는 서명 중 ‘神’자가 빠져 있다.

한편 이 달라니는 조선시대 英祖 16年(1740)에 石南寺에서 간행한 『天地冥陽水陸齋儀五種梵音集』 上卷에 합철된 實叉難陀 번역의 『佛說救面然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⁵⁸⁾과 대조하면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과 같고 첨부된 ‘佛說甘露陀羅尼呪’는 ‘佛說施甘露陀羅尼’로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본문을 校勘해도 몇 글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나 甘露陀羅尼의 경우는 진언 한자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 역시 같이 합철된 不空 번역의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도 이 經의 異譯本으로 전체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구체적 표현은 여러 곳에서 달리 나타난다. 이 자료 외에도 中宗 28年(1533)에 松廣寺에서 간행한 『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⁵⁹⁾도 있어 같은 내용이 수록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5.5.3 莊嚴王陀羅尼呪經

이 경전의 翻譯者는 ‘三藏法師 義淨 奉制譯’이란 기록 중의 ‘義淨’⁶⁰⁾으로 그는 중국 당대에 인도로 구법을 갔던 승려로 法顯·玄奘과 함께 중국 3대 구법승의 한 사람이다. 淨義로도 쓰며, 자는 文明, 속성은 張으로 范陽, 출신은 북경(一說 山東省 齊州)이다. 어릴 때 출가하여 여러 고승을 순례했고, 여러 典籍을 읽었으며, 내외의 학문을 두루 배워 고금에 정통하여 활발히 저술 활동을 하다가 開元 1年에 나이 79세로 입적하였다.

인도 여행에 뜻을 두어 37살 때인 高宗 咸亨 2年(671) 겨울 廣州에서 해로로 印度로 건너가 25년 동안 체류하면서 30여 나라를 遊歷했고, 武周 證聖 원년(695) 洛陽으로 귀국할 때 400餘部の 산스크리트어 佛經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則天武后가 직접 上東門 밖으로 나가 맞이했다.

그의 저서 중 인도여행기를 다룬 『南海寄歸內法傳』 4권과 『大唐西域求法高僧傳』 2권은 7세기 후반의 인도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교 사정이라든가 사회 상태를 기록한 귀중한 자료로 알려

58)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13 ; 2017 전국사찰목록관일제조사』 (서울: 동연연구소, 2018), 54-61.

59)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4 ; 2014 전국사찰목록관일제조사』 (서울: 동연연구소, 2018), 748-749.

60) 한보광, 임종욱,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서울: 이회문화사, 2011), 295-296.

저 있다. 그밖에 산스크리트어에 정통했던 의정은 중국의 첫 산스크리트어 교습서라 할 수 있는 『梵語千字文』 1권을 편찬하였다. 수록된 어휘는 모두 995개의 산스크리트어이며, 글자마다 한자 譯音을 붙이고 아래에 한자 對譯을 넣어 학습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洛陽과 長安 등지에서 번역에 종사하였고 귀국 직후 于闐의 實叉難陀와 함께 『華嚴經』을 공역하였으며, 久視 연간부터 睿宗 景雲 연간까지 모두 61部 239卷을 번역하였다. 대표적으로 『金光明最勝王經』과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등이 있다.

706년 中宗이 장안의 大薦福寺에 譯場을 설치하고 의정이 譯主를 맡아 당대의 역경 작업을 총괄 지휘하면서 역주의 범주에서 讀梵文·証梵文·証文·証義·証譯·筆受·潤文正字·監護 등 세 부 부서를 만들어 역경 과정을 전문화 하는데 힘썼다. 또한 그는 역경 사업에 吐火羅·中天竺·東天竺·罽賓·迦濕彌爾(카슈미르) 등 여러 나라 名僧들을 영입하였으며, 역문의 감수에 修文館大學士·兵部尙書·中書侍郎·吏部侍郎 등 20여 명의 문관들도 참가시켰다.

한편 이 다라니의 내용은 당나라 때 701년에 義淨이 東都의 大福先寺에서 번역한 것으로 부처님이 布陀落迦山(포타락가산, 광명산)에 계실 때, 莊嚴王呪文에 대하여 설하신 경이라는 뜻이다. 觀自在菩薩과 妙吉祥菩薩에게 莊嚴王陀羅尼(일체여래소호관찰중생시현불찰장엄왕다라니)와 그 공덕을 설한 경전이다. 이 다라니를 수지 독송하거나 베껴서 지니고 다니면, 그 공덕으로 항상 불보살들을 친견할 수 있고 5無間罪를 면할 수 있으며 죽어서는 극락에 태어나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거나 원수를 만나는 일이 없으며 온갖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라니의 염송법과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 경에서는 莊嚴王呪文의 효험과 이 주문을 외우는 법에 대하여 설하고 있으며, 또한 이 주문을 외우고 부처님을 공경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음을 설하고 있고 끝부분의 經末題는 ‘莊嚴王陀羅尼呪經 一卷’이며 眞言으로는 ‘聞如來所說神呪尅時世尊卽說呪’에서 10行에 걸쳐 진언을 수록하였다.

經의 내용을 大藏經 부분과 비교하면 再雕大藏經에서는 ‘羔’函, 중국의 開寶藏에서는 ‘羊’函이며 金藏에서는 ‘羔’函으로 나타난다. 이 경 역시 앞의 다라니와 마찬가지로 房山石經 등에서와 같은 ‘景’函에 수록되어 있다. 또 宋代의 崇寧藏, 毘盧藏, 思溪藏, 磧沙藏 등에는 서명 중에 ‘呪’字가 빠져 있고 再雕大藏經에서는 서명 앞에 ‘佛說’이 포함되어 있다.

5.5.4 香王菩薩陀羅尼呪經

이 경전의 卷首題는 ‘香王菩薩陀羅尼呪經 一卷’이며 翻譯者는 이미 언급한 ‘三藏法師 義淨 譯’이다. 당나라 때 義淨이 705년에 東都의 大福先寺에서 번역하였다.

이 經名을 줄여서 『香王經』이라고 하고 香왕보살의 다라니와 供養法 및 畫像法 등을 설하였다. 그 내용에는 香王菩薩을 그릴 때 몸 전체는 흰색으로 하고 머리에 天冠을 쓰며 왼손에는 白紅色의 연꽃을 들고 오른손에는 감로가 흐르도록 하여 5道の 중생들에게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그린다.

1284년 忠烈王, 元成公主 발원 金字大藏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연구

그리고 作法을 행한 후에 보내온 금전과 재물은 쌓아두지 말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권말의 經末題 부분은 空行을 앞에 두고 ‘香王菩薩陀羅尼呪經 一卷 / 九(張次) / 景(函次)’이며 본문 중의 眞言은 卷首의 제1행 뒤에 6행에 걸쳐 기록하였다.

이 다라니의 대장경에서의 수록 위치는 再雕大藏經에서는 ‘羔’函, 중국의 開寶藏은 ‘羊’函, 金藏은 ‘羔’函이며 房山石經 등에서는 이 사경과 같이 ‘景’函으로 나타난다. 서명 표기는 崇寧藏에서는 서명 중 ‘經’字가 빠져 있고, 毘盧藏에는 ‘呪’자가 빠져 있다.

5.6 卷末의 發願記錄과 軸

5.6.1 發願文

이 사경의 말미에는 조성의 시기와 발원문, 서사자 등이 다음과 같이 5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至元二十一年歲在甲申高麗國 /
國王 宮主特爲 /
皇帝萬年四海和平法界含生共證菩提 /
發願寫成金字大藏 /
中軍錄事兼修製軍器注簿 崔楨 書 /



<그림 13> 『百千印陀羅尼經』 卷末 發願文 및 軸의 형태

이 기록을 통하여 사경의 조성이 忠烈王 10年(1284)에 國王과 宮主의 발원으로 金字의 大藏經 일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같은 시기의 金字大藏에서 유사한 발원의 형식이 있어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百千印陀羅尼經』과 같은 해인 1284년에 조성된 『佛說雜藏經』의 권말 발원 문에서 ‘四海和平’의 추가된 것과 표현상의 차이 외에는 내용과 의미는 거의 같다. 다만 그 차이는 필사자에 의하여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佛說雜藏經> 至元二十一年 甲申歲 高麗國 / 國王 宮主 特爲 / 皇帝萬年 法界含靈 共證菩提 / 發願寫成 金字大藏 / 禪師 之讓 書 /	<百千印陀羅尼經> 至元二十一年 歲在甲申 高麗國 / 國王 宮主 特爲 / 皇帝萬年 四海和平 法界含生 共證菩提 / 發願寫成 金字大藏 / 中軍錄事兼修製軍器注簿 崔楨 書 /
---	--

또 1285년 즉 1년 후에 조성된 『妙法聖念處經』에서도 거의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至元二十二年 乙酉歲 高麗國 /
 國王 宮主 特爲 /
 皇帝萬年 四海和平 法界共生 共證 /
 菩提 發願寫成 金字大藏 /
 式目錄事大盈署令 金必爲 書 /

5.6.2 書寫者 崔楨

이 사경의 書寫者인 崔楨에 대하여 그 직위가 ‘中軍錄事兼修製軍器注簿’로 나타나므로 이를 구분하여 다른 史料記錄과 분석하면 이 시기의 고려 관직체계는 元의 압력으로 忠烈王 元年(1275)에 尙書 6部가 4司로 축소, 격하된 개정⁶¹⁾된 체계일 것으로 尙書兵部도 軍簿司로 바뀌었다. 이 직위를 사료에 나타나는 예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5.6.2.1 ‘中軍錄事’

이 직위는 前·後·左·右·中軍에 소속된 錄事로 그 예로는 高麗史 列傳에 수록된 ‘許載’의 경우 “9城의 役에 中軍錄事로서 吉州城을 지키다가 여진이 와서 공격하니, 兵馬副使 李冠珍 등과 함께 수개월을 굳게 지켰다”는 기록⁶²⁾을 볼 수 있다. 또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1324년 5월에 成均學諭 沈宗叔을 合浦萬戶府의 錄事로 임명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式目都監과 中軍의 錄事로 임명되었으나 刀筆吏들이 탐학하여 범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왕이 특별히 유학 經術을 아는 관리에

61) 이후의 개정은 忠烈王 24年(1298)에 있으므로 사경이 조성될 때는 1275년 개정의 체계로 추정된다.

62) 『高麗史』 卷98, 『列傳』 卷第11, 諸臣, 許載.

“...許載 字壽康 孔巖縣人 由刀筆吏起 積勞 出調鐵州防禦判官 在官清白 有惠政 九城之役 以中軍錄事 守吉州城...”

게 명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여 제도를 바르게 하였다⁶³⁾는 기록에서도 식목도감과 중군에 녹사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6.2.2 '錄事兼修製'

이 직위는 李奎報의 列傳과 墓碑銘 속에서 남적의 토벌에 참전할 때 받은 직위이다. 즉 神宗 2年(1199) 그가 全州司錄이 되었으나 동료들이 꺼려하는 바가 있어 바뀌어졌고 마침 東都(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왕명으로 이들을 토벌하려 할 때 파견 인물의 선정에서, 급제하였으나 아직 관직에 있지 않은 이들을 修製官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피하려 하였으나 이규보는 나라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중군한 까닭에⁶⁴⁾ 神宗 5年(1202)에 兵馬 錄事兼修製가 되었다.⁶⁵⁾ 이와 같이 이규보는 이 직책을 맡아 각종 제사문을 써서 문필로서 동경난을 선무하는 일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5.6.2.3 '軍器注簿'

고려의 科擧制度에서는 매회 33인을 뽑고 一般官人의 대부분은 祖, 父의 세력과 배경에 의지하여 門蔭으로 入仕하였다.

이 사경이 조성되기 전 이미 仁宗 12年(1134) 6월에 왕명에 의하여 中書門下의 宰臣들의 직접 피를 이은 直子에 대하여 '軍器注簿同正(正8品)'을 내리고 收養子, 孫, 甥, 姪에 대해서는 良醞令同正(正8品)의 官階를 주었다. 그 외에도 樞密院의 재상과 正, 從3品官의 直子(正8品) 또 그 收養子, 孫, 甥, 姪 및 正, 從4品官의 直子는 良醞令同正을 내리는 등 다음 표와 같이 門蔭의 조건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왕의 즉위 등 국가의 경사가 따를 때에도 왕의 恩典에 의하여 初入仕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⁶⁶⁾

이러한 軍器主簿를 받은 예로는 肅宗때 동북방면 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여진족을 제압하는데 공을 세운 林幹과 그의 아들 林景軾, 林景和 중 林景軾의 묘지명에는 아버지의 蔭으로 將仕郎, 軍器注簿同正을 받았다⁶⁷⁾는 기록이 있고 林景和의 墓誌銘에도 역시 아버지의 蔭으로 軍器注簿同正을 받았다⁶⁸⁾는 기록이 있다.

또 다른 예로 梁元俊은 睿宗 3년에 良醞署史同正職을 시작으로 尙舍局, 工部, 兵部, 刑部, 御史臺, 中書門下省 등을 1114년 또는 1116년의 9월에 근무 성적이 뛰어나 軍器注簿同正이 된 기록이 있다.⁶⁹⁾

63) 『高麗史』 卷35, 『世家』 卷第35, 忠肅王 11年(1324) 5월 丙申.

64) 『高麗史』 卷102, 『列傳』 卷第15, 諸臣 李奎報.

65) 李奎報墓誌銘(高宗 28年, 1241年).

66) 矢木 毅, 『高麗官僚制度研究』(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 216-224.

67) 김용선, 『譯註高麗墓誌銘集成』 上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300-304.

68) 김용선(2001), 278-281.

69) 김용선(2001), 264-268. ; 胥吏職에서 軍器注簿同正으로 진출한 예로 康拯, [] 純誠 등이 있다.

<표 3> 初入仕의 階官(門藝)⁷⁰⁾

宰臣	直子		軍器主簿同正 (正八品)
樞密·三品	直子	宰臣 收養子及孫甥姪	郎醞令同正 (正八品)
四品·前代宰臣	直子	樞密 收養子及孫甥姪	郎醞丞同正 (正九品)
五品	直子	正三品 收養子及孫甥姪	主事同正 (流外)
前代宰臣	內孫	從三品 收養子及孫甥姪	令史同正 (流外)
前代宰臣	外孫		史同正 (流外)

<표 4> 初入仕의 階官(科擧)

及第	將仕郎	禮賓注簿同正 (從七品)
		郎醞令同正 (正八品)
		秘書省校書郎同正 (正九品)
		郎醞丞同正 (正九品)

특별한 예외로 胥吏職 중 書記職으로부터 書令史, 令史로 승진하는 10년 동안의 근무성적에 의하여 將仕郎의 文散官을 획득할 수 있었고 또 軍器注簿同正(正8品)까지 승진하면 州縣官이라 말하는 實職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

즉 軍器注簿同正職은 蔭職으로 받거나, 과거를 통하여 급제한 후 이 직을 받아 승진한 鄭穆⁷¹⁾과 같은 경우도 있고 胥吏職에서 평가를 받아 승진하는 과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직명의 분석에 의하여 서사자 崔楨은 門蔭으로 入仕한 젊은 관리로 글씨를 잘 쓰는 능력을 인정받아 金字大藏을 조성할 때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경에서의 직위는 軍器注簿이며 위에서 언급한 軍器注簿同正職에서의 同正職은 正職과 같은 대우를 받는 직으로 實職이 아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義天에 의하여 주도된 敎藏을 조성할 때도 寫經院의 書者는 물론 明書業 及第者를 비롯한 각 부서의 하위 同正職들에서 선발된 참여한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史料나 다른 기록에서는 崔楨이라는 인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5.6.3 軸

현존하는 사경 중에서 권말의 축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신라 8세기의 목서경인 華嚴經에 가운데 사리를 넣은 木軸이 남아 있으며 이 때 관련된 기술자를 ‘經心匠’이라 불렀다. 그리고 아래위 끝단은 朱漆을 하거나 금속이나 목재로 장식 조각을 하여 끼운 것도 강화도 禪源寺址 발굴

70) 矢木 毅(2008), 215-217.

71) 矢木 毅(2008), 41-48.

과정에서 고려시대 유물 몇 점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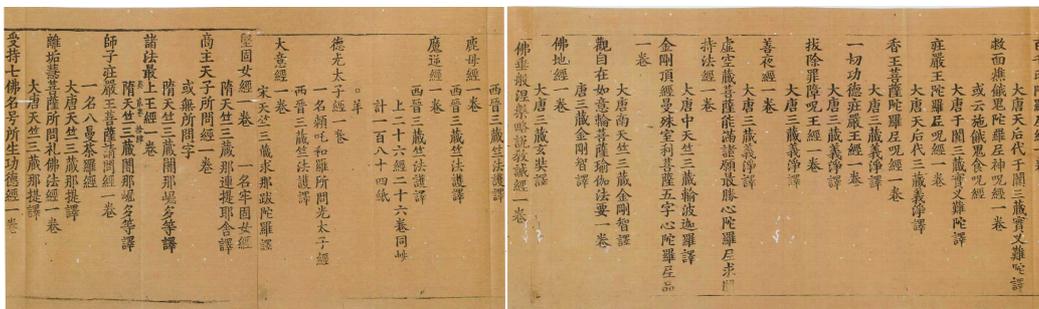
고려 국왕발원 사경인 『百千印陀羅尼經』의 경우 축 부분이 紺紙로 둘러싸여 있어서 축의 재료는 알 수 없지만 양쪽 끝단에는 투명한 둥근 水晶珠만이 노출되어 있고 지름은 1.5cm이다.

6.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函次

6.1 宋·金·高麗 大藏經과의 比較

앞서 형태사항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書名인 ‘百千印陀羅尼 四經 合’을 金泥로 쓰고 좌하단의 二重圓 안에는 ‘景’字라는 함차표시가 있다. 각 경전이 쓰여진 분량은 제외하고 그 순서만 나열하면 『百千印陀羅尼經』,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佛說甘露陀羅尼呪』, 『莊嚴王陀羅尼呪經』, 『香王菩薩陀羅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佛說甘露陀羅尼呪 7행은 별도의 부분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뒤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

開寶藏의 경우, 『開元釋教錄略出』⁷²⁾에 의거해 보면 그 편입순서가 이 사경의 편성 체제와는 같고 함차는 ‘羊’字로 확인된다.⁷³⁾



<그림 14> 『開元釋教錄略出』에서 확인되는 순서 및 함차

그러나 開寶藏과 1행 14字 체제를 따른 高麗大藏經 및 趙成金藏에서는 그 순서가 역순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그 연유는 명확치 않다. 高麗初雕大藏經, 趙成金藏, 高麗再雕大藏經의 함차는

72) 李智冠 編著, 『伽山佛教大辭林』 ①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8), 408-409. 이 책은 당나라 智昇이 편찬한 4권의 책으로 대승장·소승장·삼현성집전의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開元釋教錄』 중에서 西崇福寺 경장을 검색하기 위해 제작된 경장목록이다. 『개원석교록』 20권의 권19·20(『入藏目錄』)을 기초로 하여 편찬하였으며, 여기에 번역자 이름을 부가하고 있다. 『개원석교록』의 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으나 천자문 순서로 열거하였다.

73) 總本山醍醐寺, 『醍醐寺藏宋板一切經目錄』 別冊 影印編 (東京: 汲古書院, 2015), 192.

모두 ‘羔’함으로 開寶藏과 같은 1行 14字 계열의 경전이나 배열순서는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中華大藏經⁷⁴⁾에 수록된 趙成金藏의 경우는 『香王菩薩陀羅尼呪經』과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을 포함하고 ‘佛說甘露經陀羅尼呪’, ‘甘露陀羅尼呪’는 영인되지 않았다.

반면, 崇寧藏 이후 1行 17字 계열의 대장경에서의 해당 경전의 함차는 모두 ‘羊’함에 배열되어 있다. 崇寧藏에는 四經同卷에 똑같은 경전의 순서로 1行 17字的 체제를 보이거나, 본문 내에 ‘甘露陀羅尼呪’의 有無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續砂藏에 수록된 『百千印陀羅尼經』은 趙成金藏에서 확인된 2종의 경전 중 別本(표에서 [B]로 표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체와 내용상 高麗再雕大藏經 및 『百千印陀羅尼經(合部)』와는 수록 경전의 차이가 있다. 思溪藏 및 普寧藏의 경우는 『佛說甘露經陀羅尼呪』를 별도의 單卷으로 처리하여 五經同卷으로 만들었다.

이렇듯 송대 이후 제작된 경전들에서는 함차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이것은 번역한 경전들이 入藏編入될 때에 교체되어 들어가면서 그 수량에서 차이가 생긴 현상 등이라 할 수 있다.

<표 5> 본 사경 관련 1行 14字 계열 大藏經別 函次 및 經典의 順序

大藏經名	函次	經典의 順序	備考
開寶藏 971-983 (983-1122)	羊	百千印陀羅尼經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施餓鬼食咒經部附施水咒] 莊嚴王陀羅尼經 香王菩薩陀羅尼經	
高麗藏[初雕] 1011-	羔	香王菩薩陀羅尼呪經 莊嚴王陀羅尼呪經 救面然餓鬼經 百千印陀羅尼經	『大藏目錄』참고
趙成金藏 1149-1173	羔	佛說莊嚴王陀羅尼呪經 百千印陀羅尼經: [A], [B] 2종 有存 * 中華大藏經에는 우측의 경전은 高麗再雕大藏經을 影印하여 수록함	香王菩薩陀羅尼呪經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佛說甘露經陀羅尼呪 甘露陀羅尼呪
高麗藏[再雕] 1236-1251	羔	香王菩薩陀羅尼呪經(K.457) 佛說莊嚴王陀羅尼呪經(K.458)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K.474) 佛說甘露經陀羅尼呪 甘露陀羅尼呪 百千印陀羅尼經(K.477)	괄호 안의 번호: 高麗藏 再雕本の 경전번호 ⁷⁵⁾

74) 中華大藏經編輯局編, 『中華大藏經』 제24책 (上海: 中華書局出版, 1987).

75) 李瑄根, 『高麗大藏經 總目錄·解題·索引』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1284년 忠烈王, 元成公主 발원 金字大藏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연구

<표 6> 본 사경 관련 1행 17字 계열 大藏經別 函次 및 經典의 順序

大藏經名	函次	經典의 順序	備考
崇寧藏 1080-1104	羊	百千印陀羅尼經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莊嚴王陀羅尼經 香王菩薩陀羅尼經	四卷 同經 ⁷⁶⁾
思溪藏	羊二	百千印陀羅尼經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佛說甘露經陀羅尼 莊嚴王陀羅尼經 香王菩薩陀羅尼經	五卷 同經
普寧藏 1277-1290	羊二	百千印陀羅尼經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佛說甘露經陀羅尼 莊嚴王陀羅尼呪經 香王菩薩陀羅尼呪經	五卷 同經
磧砂藏 1234-1322	羊二	百千印陀羅尼經(趙成金藏의 [B]종과 같음)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莊嚴王陀羅尼呪經 香王菩薩陀羅尼呪經	四卷 同經

6.2 房山石經 · 契丹大藏經과의 비교

한편 宋代 이후의 대장경들을 제외한 遼代 간행된 契丹藏의 함차⁷⁷⁾를 高麗藏 再雕本의 함차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契丹藏이 再雕本보다 함차가 2개 뒤로 미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百千印陀羅尼經(合部)』나 『佛說雜藏經』의 경우도, 이처럼 再雕本보다 2개 뒤의 함차로 나타난다.

<표 7> 應縣木塔 출현의 契丹藏과 高麗藏 再雕本의 函次 비교

연번	經典名	再雕함차(천자문번호)	遼藏(契丹藏) 함차(천자문번호)	함차간격
1	大方廣佛華嚴經 卷第47	問(107)	垂(109)	2
2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4	平(111)	愛(113)	2
3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6	平(111)	愛(113)	2
4	大方廣佛華嚴經 卷第51	愛(113)	首(116)	3
5	妙法蓮華經 卷第2	鳴(129)	在(131)	2
6	稱讚大乘功德經 卷1	毀(159)	女(161)	2
7	大法炬陀羅尼經 卷第13	彼(179)	靡(181)	2
8	大方便佛報恩經 卷第1	覆(188)	欲(190)	2
9	中阿含經 卷第36	興(262)	清(264)	2
10	阿毗達磨發智論 卷第13	懷(354)	弟(356)	2
11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如來陀羅尼經	杜(481)	刻(527)	46
12	一切佛菩薩名集 卷第6	×	勿(564)	

76) 總本山醍醐寺, 『醍醐寺藏宋板一切經目錄』別冊 影印編(東京: 汲古書院, 2015), 422.

77)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遼代秘藏』(北京: 文物出版社, 1991), 11-12.

이와 더불어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을 房山石經으로 살펴보면 房山石經 중에서 四經同卷에 함차가 동일한 ‘景’함으로 ‘甘露陀羅尼呪’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사 순서와 방향, 체제가 동일한 1121년(保大元年) 제작된 『百千印陀羅尼經(合部)』 경전이 수록되어 있다.⁷⁸⁾

총 10장으로 되어 있으며, 우측과 좌측 끝단에 小字로 권수에는 ‘經典名 / 張次 / 函次’를 쓰고 있으며, 좌측 끝단에는 施主者 혹은 書者 및 刻僧의 이름과 제작년도를 새겨두었다.

시주자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永清縣 韓村李師悅’과 ‘安次縣 宗大郎’이 참여하였고, 제5장에는 ‘僧惠純刻’, 8장에서는 ‘僧志仍刻’이라는 刻僧의 이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10장에는 書者인 ‘金臺沙門 惟和書’와 각수명의 표시인 ‘善擢刻’의 기록이 있다(<표 8> 참고).

이에 대해 周紹良은 房山石經과 契丹藏과의 函次編號 관계는 可洪이 編撰한 『新集藏經音義隨函錄』⁷⁹⁾의 千字文과 일치한다⁸⁰⁾고 하였으며 실제로 앞의 책 제9책 중 ‘景’함에는 『智炬陀羅尼經』을 포함한 26종 및 『百千印陀羅尼經(合部)』 4개의 경전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房山石經 『百千印陀羅尼經(合卷)』의 板刻 관련 기록

연번	우측 板首題 기록(經名, 張次, 函次)	좌측 板尾의 施主者, 板刻時期, 書者, 刻者 기록
1면	救面然餓鬼神呪經 莊嚴王陀羅尼呪經 香王菩薩陀羅尼呪	施主永清縣韓村李師悅爲見在父母辨到經碑 經
2면	百千印陀羅尼經 二 景	
3면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與百千印陀羅尼合卷 三, 景	施主永清縣韓村李師悅爲見在父母辨到經碑
4면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與百千印陀羅尼合卷 四, 景	保大元年五月日造
5면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與百千印陀羅尼合卷 五, 景	保大元年五月日造 僧惠純刻
6면	莊嚴王陀羅尼呪經 與百千印陀羅尼合卷 六, 景	施主安次縣宗大郎爲亡 父母辨到經碑
7면	莊嚴王陀羅尼呪經 與百千印陀羅尼合卷 七, 景	施主安次縣宗大郎爲亡 父母辨到經碑
8면	莊嚴王陀羅尼呪經 與百千印陀羅尼合卷 八, 景	保大元年五月日造 僧志仍刻
9면	香王菩薩陀羅尼呪經 與百千印陀羅尼合卷 九 景	施主安次縣宗大郎爲亡 父母辨到經碑
10면	香王菩薩陀羅尼呪經 與百千印陀羅尼合卷 十 景	保大元年五月日造 金臺沙門惟和書/ 善擢刻



<그림 15> 房山石經의 『百千印陀羅尼經(合部)』 卷首

78) 中國佛教協會中國佛教圖書文物館 編, 『房山石經』 遼·金刻經13 (北京: 華夏出版社, 2000), 563-567.

79) 可洪이 後唐시대인 931년 11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後晉시대인 940년 7월에 완성한 것으로 『可洪音義』라고도 불린다.

『開元釋教錄』에 수록된 1,076종 5,048권의 한문 경전에서 어려운 글소리, 뜻 등에 주석을 붙인 일종의 사전이다.

80) 黃炳章, “房山石經遼金兩代刻經概述,” 『房山石經之研究』 (北京: 中國佛教協會出版, 1987), 108-134.

1284년 忠烈王, 元成公主 발원 金字大藏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연구

또한 黃炳章은 『鐫葬藏經總經題天號目錄』을 통하여 ‘이 목록은 金代 1140년 沙門 玄英과 弟子 史君慶이 撰刻한 것으로 遼·金代에 걸쳐 “覆, 器, 欲…(중략)…封, 八”의 編戶에 해당하는 27帙, 248卷의 經書目錄이며, 이 책의 『字號目錄』 중 “覆”에서부터 “景”까지의 13帙은 遼 天祚帝의 在位 기간 중 간행된 것으로, “羊”, “景” 2개의 편호 안에 이미 遼藏(契丹藏) 및 金藏이 들어가 있다⁸¹⁾고 하였으므로 『百千印陀羅尼經(合部)』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⁸²⁾

<표 9> 房山石經과 『百千印陀羅尼經(合部)』 寫經의 교감대조

經典名	張次	行	字	寫經	房山石經	備考
百千印陀羅尼經	1	10	17	嚕	魯	異字
		11	2	嚕	魯	異字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2	4	13	市	匪	異字
		4	4	1	丘	比
	4	17	12	敵	敵	異字
		佛說甘露陀羅尼呪	5	1	2	無
莊嚴王陀羅尼呪經	6	2	16	著	着	通用字
		7	7	咬	皎	異
香王菩薩陀羅尼	10	1	12	豈	蓋	異
		7	9	著	着	通用字
		10	16	著	着	通用字

7. 金·銀字大藏의 函次

7.1 國王發願 金字大藏

金字大藏의 경우는 그 체제 및 함차 등이 충렬왕대 사성된 것과 충숙왕대 사성된 것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새로 발견된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函次를 비롯하여 1284년인 동일년 도에 사성된 『佛說雜藏經』의 함차가 再雕大藏經보다 2字 뒤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해 인 1285년 제작된 『妙法聖念處經』의 경우도 1行 17字의 체제에 함차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경전 또한 재조본의 함차에서 뒤로 2개 순서가 미뤄진 ‘璧’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종 모두 紺紙에 金字로 寫成되었으며, 發願文의 형식이 동일하고 발원문의 4행에 ‘發願寫成金字大藏’

81) 周紹良, “房山石經与《契丹藏》,” 『房山石經之研究』 (北京: 中國佛教協會出版, 1987), 167-181.

82) 『三國遺事』 卷3 답상 4 『前後前後所將舍利』 ‘…本朝睿廟時, 慧照國師奉詔西學, 市遼本大藏三部而來, 一本今在定惠寺. (海印寺有一本, 許參政宅有一本) 大安二年(1086)’

『遼史』 권22 道宗 2 咸雍 4年(1068) 2月 癸丑日

『遼史』 권115 列傳 第45 二國外記 高麗 條 咸雍 8年(1072) 12月

에서와 같이 당시 고려로 유입된 거란경전의 형식이 房山石經 및 본고에서의 사경과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라 할 것이다.

<표 10> 13世紀 金字大藏

연번	경명	합차	再雕函次	재질	행자수	년도	소장처
1	百千印陀羅尼經四經合	景	k.477羔	紺紙金字	1行 17字	1284	日本 龍谷大學圖書館
2	佛說雜藏經	辭	k.767思	紺紙金字	1行 17字	1284	日本 개인소장
3	妙法聖念處經	[壁] ⁸³⁾	k.1116漆	紺紙金字	1行 17字	1285	中國 北京 故宮博物館

<표 11> 14世紀 金字大藏

연번	경명	합차	再雕函次	재질	행자수	년도	소장처
1	攝大乘論釋論 卷3	獸	k.593興	紺紙金字	1行 14字	1319	개인소장
2	佛說佛名經 卷10	虛	k.390恃	紺紙金字	1行 15字	1319	개인소장
3	聖佛母般若波羅密多九頌精義論	帳	k.1478九	紺紙金字	[1行 14字]	1319	개인소장
4	佛說大吉祥陀羅尼經 · 佛說普賢陀羅尼經	陪	k.1238陪	紺紙金字	1行 14字	1324	日本 神戶市國立博物館 (前 太山寺)

반면, 이 충렬왕대 이후에 조성된 국왕발원 사경 중 충숙왕이 발원하여 사성된 3종의 경전에 대해서는 1989년 이후 黃壽永 등의 소개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⁸⁴⁾

그 외에 『佛說大吉祥陀羅尼經 · 佛說普賢陀羅尼經』의 경우는 再雕大藏經과 그 합차가 동일하고 1행 14자로, 권말의 간기도 재조본의 것과 동일한 양식인 ‘甲子歲高麗國王發願寫成金字大藏’이라고 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할 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고려시대 금자대장이 최소한 3회 이상 사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7.2 國王發願 銀字大藏

현재까지 발원문을 비롯하여 체제와 합차 등을 비교하였을 때, 銀字大藏은 재조본을 저본으로 하여 별도로 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 7점 중 6점이 紺紙에 銀字로 쓰여졌으며, 1행 14자의 국왕발원 형식을 취하며, 발원문 또한 ‘至元十二乙亥歲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과 같은 동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재조본과 사경의 합차가 동일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다만, 『正法念處經』의 경우는 사경의 합차가 오히려 1개 앞으로 당겨진 ‘美’로 확인된다.

83) 『妙法聖念處經』의 경우 房山石經에서는 ‘伊’字的 函次로 확인된다.

84) 黃壽永, “高麗金書大藏經의 初見,” 全國歷史學大會 제32회, 1989.

黃壽永, “高麗國王發願의 金 · 銀字大藏,” 『考古美術』 제125호(1975), 2-7.

千惠鳳, “潘王 王璋發願의 金字大藏 三種,” 『書誌學報』 創刊號(1990), 3-21.

<표 12> 13~14世紀 銀字大藏

연번	경명	합차	再雕函次	재질	행자수	년도	소장처
1	不空羂索神變眞言經 第13卷	慕	k.287慕	紺紙銀字	1行 14字	1275	리움미술관
2	文殊師利問菩提經	敢	k.222敢	紺紙銀字	1行 14字	1276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3	佛說菩薩本行經 卷下	覆	k.403覆	紺紙銀字	1行 14字	1278	리움미술관
4	菩薩善戒經 卷第8	維	k.524維	紺紙銀字	1行 14字	1280	동국대학교박물관
5	顯識論	力	k.611力	紺紙銀字	1行 14字	1284	연세대학교 도서관
6	正法念處經 卷第50	美	k.801慎	紺紙銀字	1行 14字	1289	공인박물관
7	阿育王太子法益壞目因緣經	禽	k.1018禽	紺紙銀字	1行 14字	1325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7.3 기타 金·銀字大藏

기본적으로 국왕 및 왕실발원 사경이 아닌 경우이나, 그 체제를 따르고 있는 개인발원 사경 및 기타 금은자 대장경을 구분해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고려시대 金寫經으로 가장 빠른 시기 사성된 것으로 보이는 『大寶積經』과 발원문이 없어 그 사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蘇悉地羯羅供養法』도 變相圖의 神將像이 그려진 형식으로 미루어 金字大藏이라 추정된다.

『大寶積經』은 합차가 ‘帝’함으로 제조본보다 1개의 합차가 뒤로 밀려나 있다. 그러나 정교한 표지화 및 변상화가 남아 있어 11세기 金字大藏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蘇悉地羯羅供養法』의 합차는 제조본보다 84개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저본과의 연관성을 현재로서 추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권수부분의 변상화가 國王發願에서 보여지는 神將像이 그려져 있어 그 寫成의 배경이 왕실과 관련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 외 私宅을 왕실에 반쳐 寫經所를 만들었던 염승익 발원의 『妙法蓮華經』의 경우, 개인 발원의 사경이지만 1行 14字, 紺紙에 金字로 쓰여지고 發願文이 있으며 表紙畫 및 神將像이 그려져 있고 합차 또한 제조본의 합차와 동일한 ‘鳴’字로 확인되므로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銀字大藏들과 함께 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기림사 및 성보문화재단, 동화사,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銀字寫經 11점의 경우, <표 15>에서 확인되듯이, 이 중 『佛說大方廣十輪經』만이 紺紙에 쓰여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椽紙에 銀字로 모두 1行 17字인 점이 동일하다. 이 중 연번 1~5까지의 경전은 사경의 합차가 제조본의 합차와 모두 동일하지만, 이후 6~10에 해당하는 경전은 제조본의 합차보다 1개씩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제조본을 저본으로 한 1行 14字 체제의 紺紙로 된 大藏經의 사성이 외에도 椽紙에 1行 17字 체제의 또 다른 銀字大藏의 사성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시된 합차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紺紙에 銀字로 1행 17字이면서 합차가 표시된 자료가 현존함으로써 은자대장이 추가로 더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13> 기타 函次가 있는 金字大藏

연번	경명	합차	再雕函次	재질	행자수	년도	소장처
1	大寶積經 第32卷	帝	k.22 火	紺紙金字	1行 17字	1006	日本 都國立博物館
2	蘇悉地羯羅供養法 上卷	容	k.432 詩	紺紙金字	1行 14字	[14C]	日本 慈賀縣 西明寺

<표 14> 기타 函次가 있는 1行 14字 銀字大藏

연번	경명	합차	再雕函次	재질	행자수	년도	소장처
1	妙法蓮華經 第1卷	鳴	k.116鳴	紺紙銀字	1行 14字	1283	국립중앙박물관

<표 15> 기타 函次가 있는 1行 17字 銀字大藏

연번	경명	합차	再雕函次	재질	행자수	년도	소장처
1	大般若波羅密多經 卷第210	秋	k.1秋	椽紙銀字	1行 17字	[1348]	기림사
2	大般若波羅密多經 卷第259	餘	k.1餘	椽紙銀字	1行 17字	[1348]	기림사
3	大般若波羅密多經 卷第561	果	k.1果	椽紙銀字	1行 17字	[1348]	기림사
4	放光般若波羅密經 卷第12	重	k.2重	椽紙銀字	1行 17字	[14세기]	기림사 (36행 17자)
5	大般若波羅蜜多經 卷第305	調	k.1調	椽紙銀字	1行 17字	[14세기]	정보문화재단
6	等集衆德三昧經 卷下	及	k.140賴	椽紙銀字	1行 17字	[14세기]	기림사 (42행 17자)
7	佛說寶雨經 卷2	草	k.133被	椽紙銀字	1行 17字	[14세기]	정보문화재단
8	大智度論 卷第28	建	k.549德	椽紙銀字	1行 17字	[14세기]	정보문화재단
9	大寶積經 卷第94	制	k.22始	椽紙銀字	1行 17字	[14세기]	동화사
10	無言童子經 卷下	殷	k.77發	椽紙銀字	1行 17字	[1348]	대흥사 정보박물관
11	佛說大方廣十輪經 卷第5	弔	k.58唐	紺紙銀字	1行 17字	[14세기]	기림사

<표 16>과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시대 高麗藏 再雕本과 金·銀字寫經大藏의 합차는 주로 550년대 이전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기타 합차가 있는 銀字寫經들은 大乘經部에 속하는 千字文의 21~210번으로 비교적 앞부분에 분포되어 있다. [秋(21), 餘(26), 調(31), 果(57), 重(62), 制(82), 弔(97), 殷(103), 草(139), 及(142), 建(210)]

再雕本과 동일한 합차로 이루어진 銀字大藏은 천자문의 순서로는 6종 중 5종이 157~252번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慕(162), 敢(158), 覆(188), 維(203), 力(252), 美[293], 禽(435)] 이는 대승경부 내에서도 五大部外諸重譯經에 해당한다. 14세기 합차가 있는 자료들 4종 중 3종은 435~507번 [獸(436), 虛(221), 帳(446), 陪(507)]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大乘經單譯의 앞부분에 속한다.

1284년 忠烈王, 元成公主 발원 金字大藏 『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연구

<표 16> 高麗藏 再雕本과 高麗時代 寫經大藏의 함차순 정리

표 번호	연번	再雕 함차(천자문번호)	寫經 함차(천자문번호)	함차간격
〈표 9〉	1	羔(199)	景(201)	+2
	2	思(284)	辭(286)	+2
	3	漆(485)	[壁][487]	+2
〈표 10〉	1	與(247)	獸(436)	+189
	2	恃(182)	虛(221)	+39
	3	九(306)	帳(446)	+140
	4	陪(507)	陪(507)	-
〈표 11〉	1	慕(162)	慕(162)	-
	2	敢(158)	敢(158)	-
	3	覆(188)	覆(188)	-
	4	維(203)	維(203)	-
	5	力(252)	力(252)	-
	6	慎(294)	美(293)	-1
	7	禽(435)	禽(435)	-
〈표 12〉	1	火(75)	帝(76)	+1
	2	詩(197)	容(281)	+84
〈표 13〉	1	鳴(129)	鳴(129)	-
〈표 14〉	1	秋(21)	秋(21)	-
	2	餘(26)	餘(26)	-
	3	果(57)	果(57)	-
	4	重(62)	重(62)	-
	5	調(31)	調(31)	-
	6	賴(141)	及(142)	-1
	7	被(138)	草(139)	-1
	8	德(209)	建(210)	-1
	9	始(81)	制(82)	-1
	10	發(102)	殷(103)	-1
	11	唐(96)	弔(97)	-1

8. 맺음말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日本 京都 龍谷大學圖書館에 소장된 『百千印陀羅尼經(合部)』를 처음 소개하면서 고려 忠烈王 때 金字大藏으로 조성된 國王, 宮主의 발원 사경에 대하여 그 물리적 형태와 사경의 구성체제,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고려의 금은자 사경의 시작은 10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忠烈王代에는 寫經院이나 金字院, 銀字院에서 金字와 銀字로 대장경을 만들었고 그 일부가 현재까지 전해져 전모를 추정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나 알려진 사경들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表紙畫, 神將像을 포함한 4종의 陀羅尼經, 發願文, 忠烈王과 齊國大長公主의 手決과 印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자료는 고려 忠烈王 10年(1284)에 國王과 宮主인 元成(安平公主, 齊國大長公主)公主의 발원에 의하여 제작된 金泥로 쓴 寫經이다.

둘째, 이 金字寫經은 ‘景’자의 函次가 표시된 大藏經의 일부이며 水晶軸을 가진 卷子本의 형태로 전체는 9장의 연결이며 紺紙 바탕에 金泥의 테두리와 界線을 긋고 한 행에 17자를 기준으로 간혹 16-18자의 출입이 있다.

셋째, 수록된 경전은 4종이 합본되어 있는 형식으로 『百千印陀羅尼經』, 『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과 『佛說甘露陀羅尼呪』 7행, 『莊嚴王陀羅尼呪經』, 『香王菩薩陀羅尼呪經』이 차례로 포함되어 있다.

넷째, 表紙의 裏面에 忠烈王의 2번째 개명한 諱인 ‘瞻’자가 붉은 색 수결로 있고 나란한 위치에 ‘元成殿’ 즉 齊國大長公主의 기록과 ‘封印’이란 파스파문자가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宮主가 누구인지 분명해졌으며 국왕의 手決과 宮主의 印章은 처음 확인되는 것이다.

다섯째, 表紙畫와 神將像은 13세기 후반의 다른 金銀字寫經과 유사하고 특히 神將像을 그린 畫員의 이름인 ‘鄭[益迂(추정)]’란 기록이 그림의 우측 하단에 있다. 특히 신장상의 표현은 다른 사경과 비슷하지만 持物을 잡은 자세가 각각 다르다.

여섯째, 권말의 發願文과 筆寫記는 다른 金字大藏과 문장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표기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또 이 사경을 직접 쓴 인물은 崔楨으로 사료 등에서 그 인물은 확인되지 않으나 蔭職의 하위 직급을 받은 글씨를 잘 쓰는 젊은 사람인 까닭에 사경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景’자의 함차와 4종(甘露水陀羅尼 포함) 경전의 수록 내용은 房山石經과 『新集藏經音義隨函錄』 제9책의 ‘景’함에 포함되어 있어서 契丹藏의 순서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4종 경전이 金藏, 初雕大藏經, 再雕大藏經에서는 ‘羔’함에 포함되고 경전의 배열순서도 본 사경과는 역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房山石經과 비교할 때 경전의 수록 순서, 형식, 글자의 異同, 제목과 저자의 표시, 경전의 권수에서 합본을 표시한 小字 1행의 제목 연결 등은 이 사경이 마치 房山石經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정황상 房山石經 轉入보다는 두 자료에서 채택한 같은 계열의 底本 즉 거란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세부적인 표기나 異體字 등에서도 특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이 사경을 통하여 忠烈王代의 金字大藏은 이후 14세기의 金字大藏들과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고 한 행에 17자를 기본으로 하여 같은 시기의 銀字大藏이 14자인 것과 구분이 된다. 또 銀字大藏과 이 시기 이후의 사경들이 再雕大藏經의 函次로 표시하는 것에 비하여 이 시기의 金字大藏은 崇寧藏 이후의 배열과 契丹藏의 함차에 이르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사경은 알려진 金字大藏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부분별 각 요소들과 함차 기록 등은 忠烈王代의 金字大藏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료와 더불어 이 분야의 연구는 앞으로 관련된 더 많은 원자료들이 발굴하고, 기존의 자료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고려시대의 불교사상은 물론 서예, 미술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로 한 단계 발전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原典]

『高麗史』
『高麗史節要』

[圖錄]

국립중앙박물관.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 서울: 同館, 2007.
불교중앙박물관.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 서울: 同館, 2011.
수덕사성보박물관. 『至心歸命禮 ; 한국의 불복장』. 충남: 同館, 2004.
奈良國立博物館. 『東アジアの仏たら』. 奈良: 同館, 1996.
京都國立博物館. 『古寫經 ; 聖なる文字の世界』. 京都: 同館, 2004.
空印博物館. 『空印博物館』. 양산: 同館, 2008.

[目錄輯]

大藏經對照目錄Ⅱ 大正藏·敦煌出土佛典對照目錄(제2판). 東京: 國際佛敎大學院大學付屬圖書館, 2006.
『日本現存八種一切經對照目錄』. 東京: 國際佛敎大學院大學, 2006.
中華大藏經編輯局編. 『中華大藏經』 제24책. 上海: 中華書局出版, 1987.
藤井實應. 『日本増上寺史料集』 別卷1~3. 日本: 大本山増上寺, 1981.
易行 責任編輯. 『磧砂大藏經』 제41책. 北京: 線裝書局, 2005.
李瑄根. 『高麗大藏經 總目錄·解題·索引』.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黃永武 主編. 『敦煌遺書最新目錄』.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6.
總本山醍醐寺. 『醍醐寺藏宋板一切經目錄』 別冊 影印編. 東京: 汲古書院, 2015.

[單行本]

權熹耕. 『고려의 사경』. 서울: 글고운, 2006.
김갑동 외 6명. 『고려의 왕비 -내조자와 국모로서의 삶-』. 서울: 경인문화사, 2015.
김경호. 『한국의 사경』. 서울: 고륜, 2006.
南勸熙.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문화재』 제4권. 서울: 同委員會, 2003.
- 李珪甲. 『燉煌文獻總覽』.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1.
- 李基白.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서울: 一志社, 1993.
- 張忠植. 『한국사경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정승식 외. 『고려대장경해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1998.
- 蔡運辰. 『二十五藏經目錄對照考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3.
-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서울: 一志社, 1992.
- 文化財管理局.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92~93指定篇』. 서울: 同局, 1994.
- 鮑志成. 『高麗史與高麗王子』. 杭州: 杭州大學出版社, 1995.
-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瘻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 中國佛教協會中國佛教圖書文物館 編. 『房山石經』; 瘻·金刻經13. 北京: 華夏出版社, 2000.
- 竺沙雅章 著.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汲古叢書25. 東京: 汲古書院, 2000.

[論文]

- 李殷希. “高麗寫經書體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1980.
- 李殷希. “湖林博物館所藏 高麗寫經 資料紹介.” 『文化財』 21집(1988). 285-306.
- 朴英緣. “元代 八思巴 文獻 研究 導論.” 『大東文化研究』 제66집(2009). 335-367.
- 張忠植. “高麗國王, 宮主 發願 金字大藏經考.” 『불교와 역사』 (한국불교원, 1991). 717-719.
- 張忠植. “直指寺 金字大藏經의 考察.” 『韓國佛教의 座標(綠園스님 古稀紀念學術論叢)』, 1997. 313-314.
- 張忠植. “海印寺 金字無生戒法과 義相의 一乘發願文.”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복장 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 張忠植. “高麗金銀字大藏經.” 『韓國佛教文化思想史』. 서울: 伽山佛教文化振興院, 1992. 386-391.
- 趙明基. “高麗紺紙銀字寫經.” 『考古美術』 18號(1962). 189-190.
- 千惠鳳. “瀋王 王璋發願의 金字大藏 三種.” 『書誌學報』 創刊號(1990). 3-21.
- 千惠鳳.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25-326.
- 許興植.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과 覺慶戒牒의 奉安背景.”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 黃壽永. “高麗寫經의 研究.” 『考古美術』 180號(1988). 51-67.
- 黃壽永. “安城 淸源寺의 高麗寫經.” 『東洋學』 5집(1975). 443-454.
- 黃壽永. “高麗金書大藏經의 初見.” 全國歷史學大會 제32회(1989). 386-391.
- 黃壽永. “高麗國王發願의 金·銀字大藏.” 『考古美術』 제125호(1975). 2-7.
- 黃炳章. “房山石經遼金兩代刻經概述.” 『房山石經之研究』. 北京: 中國佛教協會出版, 1987. 108-134.
- 周紹良. “房山石經与《契丹藏》.” 『房山石經之研究』. 北京: 中國佛教協會出版, 1987. 167-181.